



[뉴스] 구속영장 청구에 공정위 고발까지 기업 수난사 언제까지 02



Economy

코스피	2376.24 (-24.80)	코스닥	840.23 (-25.99)
금리 (6개월)	2.18 (-0.01)	환율 (원/달러)	1104.80 (+7.10) (18일)

서민 발등 짚는 P2P, 2兆 핀테크시장 썩어간다

▲P2P금융 진퇴양난

〈上〉 잇따른 사고

‘2시펀딩’·‘헤라펀딩’ 등 4곳 대표 잠적·먹튀 사건 발생 자금돌려막기 혐의 ‘아나리츠’檢 압수수색·직원 조사 진행



사기와 대표도주 등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P2P금융업체. 위에서부터 아나리츠, 더하이원펀딩, 오리펀딩, 헤라펀딩, 2시펀딩 로고 /각 사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면서 누적 대출 규모만 2조원이 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시장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 투자자의 돈을 끌어 모았던 P2P 금융 업체의 사기 의혹과 대표이사 도주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P2P금융 업계 전반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체 ‘아나리츠’ 금융상품에 연체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상환을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방법 검찰청은 P2P업체 아나리츠를 압수수색하고 아나리츠 직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P2P금융 대출 규



P2P업체 아나리츠 광고

/아나리츠 홈페이지

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의 상환일을 미루면서도 모든 의문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아나리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사가 책임을 지겠다”며 “앞으로 현황 상황에 대해 상품별 진행 및 변경사항에 대

해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PF 대출업체로 자금 돌려막기와 차주가 다른 상품에 투자자 모집을 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자금 돌려막기는 업체 분양상품을 1차, 2차 등으로 늘리면서 1차 상환금(대출금)을 2차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꾸는 형식을 말한다.

대출자가 연체하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대출자가 한 번 연체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줄줄이 투자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원펀딩’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금을 상환에 앞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만 최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2시펀딩·헤라펀딩·더하이원과 오리펀딩에 이어 아나리츠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2시펀딩 대표는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잠적한 상태이며, 헤라펀딩은 지난달 24일 130

억원의 투자금을 미상환한 채 부도났다. 또한 6월 초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잠적했던 오리펀딩 조성환 대표는 최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2P업체 관계자는 “올해가 P2P금융업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정도 일출은 몰랐다”며 “P2P업체 중 신생이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수익률을 높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려 하다 보니 위험성 높은 상품을 계속 제공해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잇따른 사고로 P2P금융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업체내부의 자율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금융당국의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돼 P2P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文대통령, 수·보 회의의 청직원에 생중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실시간 중계로 국정철학과 대통령 지시사항, 논의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희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상환의지·계획 확실하면 언제든 대출 받도록 해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채무자 맞춤형 체제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 “공급실적이 아닌 실제 이용자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 지,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상환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경우에 채무금액에 따라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서민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기관들이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4대 상품인 미소금융·햇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론·새희망홀씨·바퀴드림론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7.5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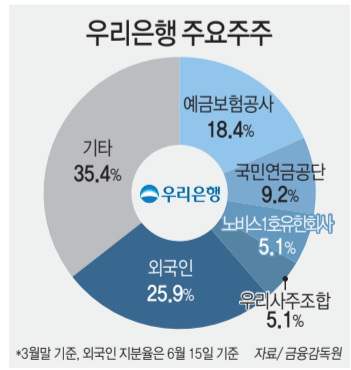
하지만 금융위는 그간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인하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신용등급 7등급→6등급 이하)하는 데에 중점을 뒀 8~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TF에 ▲감면율 확대, 변제 기간 단축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으로 재정비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 TF는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우리은행發 M&A 큰장... 오늘 지주전환 신청

빠르면 3분기 중 설립인가 지주사 전환 공식화 이후 특정 증권 인수설 등 술렁



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주사 설립 목표시기는 내년 초다.

지주사 설립에 있어 가장 큰 관문은 금융당국의 인가와 주주 동의 여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이미 “우리은행이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아무래도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선 금융위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인가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 신청에 대한 인가는 빠르면 3분기 중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는 임시 주주총회다. 우리은행 주가는 1만5000원선에서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한 이후 1만6000원대로 상승세를 탔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 전망이 더 밝아졌다. 이는 점에서 매수청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기대한 M&A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지주체제로의 전환이 출자 제한을 극복하고 비은

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지주사의 출자역력은 8조7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의 현재 출자역력 7000억원 안팎에서 10배 이상 증자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 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란 간접 규제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M&A 우선순위로 꼽히는 업권은 증권과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등이다.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인수 부담이 높지 않으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은 분야다.

이미 교보증권과 우리은행 인수설이 돌기도 했지만 증권사보다 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을 먼저 인수해 자산관리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또, 구속영장 청구에 공정위 고발... 기업 수난사 언제까지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이 권력기관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위기 등을 맞아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겹쳐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각종 거래내역에 공정위 조사 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는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정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자진사퇴 안해 과심죄? 예상못한 영장청구에 술렁

경찰, 황창규 KT 회장 등 4명 영장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의 황창규 회장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선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창규 회장 등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황 회장의 구속이 앞으로 KT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KT 사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영장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될 전망이다. 황 회장이 구속될 경우 KT는 최고경영자 공백 상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거액이 들어가는 5G 투자를 비롯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등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최고경영자 자리를 오래 비워둘수록 타격이 크다.

당장 황 회장의 부재는 5G 주파수 경매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SK텔레

구분	의뢰명	금액(만)	비고
위	위원장	500	
	간사(소위)	1,0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위	위원장	500	
	간사(소위)	1,0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KT가 '상품권' 수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또개기' 후원금을 보낸 내역서. /연합뉴스

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이 영장 받는 상황에서 KT가 5G 주파수에 과감한 배팅을 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무리하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도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 사안 자체가 전혀 새롭지 않는데 경찰이 과잉의욕으로 일을 크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KT 황창규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면 이후 몇개월 동안을 들여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새로 부임한 회장은 업무 파악에만 다시 몇개월을 소비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중요한 사안이 산적한 KT가 경영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銅 안정수급 위해 회사 설립 7년 지나 통행세 혐의 고발?

공정위, LS 경영진 6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LS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 과징금은 LS 111억 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대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LS(구 LS전선)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한 회사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LS전선이 기획해 '금융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금융간담회는 LS의 최고이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정 기구로 총수일가 6~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그룹 내 전선 계열사(LS전선·가온전선·LS메탈·JS전선)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지시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할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였다. 이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냈다.

LS전선은 해외생산자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LS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해외 생산자와 가격을 협상 및 결정하지

않았다.

LS글로벌은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다. 이에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 6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주)LS(구 LS전선 포함)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영·법무 진단을 벌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열사와 공유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부당내부거래로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은 국내 전기동 거래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업계에서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입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현대기아차, 북미·유럽·인도 권역별 자율경영

글로벌 현장 경쟁력 강화나서 고객요구 능동대응 조직 구성

현대·기아자동차가 북미와 유럽·인도에 각각 권역본부를 설립하고 글로벌 현장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현장 중심 자율경영 체제 강화에 나선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북미·유럽·인도 권역본부를, 기아차는 북미·유럽 권역본부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각 권역본부는 해당 지역 상품 운영을 비롯한 현지 시장전략·생산·판매 등을 통합 운영하고 시장과 고객 요구에 능동 대응할 조직으로 구성된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는 미국 생산·판매법인인 캐나나, 멕시코 판매법인인 포함되며 유럽권역본부는 체코와 터키 생산법인을 비롯해 현지 판매법인으로 이뤄진다. 또 인도권역본부는 인도 생산·판매법인인 포함된다.

기아차 북미권역본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생산·판매법인과 캐나다 판매법인, 유럽권역본부는 슬로바키아 생산법인과 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연합뉴스

지 판매법인으로 각각 구성된다.

각 권역본부에는 기획·재경·상품·고객 경험 등 별도 조직도 신설된다. 기획·재경 조직은 해당 국가별 실적을 종합하고 생산·판매 조정과 권역 합산 손익 관리로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며, 각 권역별 사업성과 극대화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 마케팅, 딜러·서비스 조직은 지역별 시장 수요를 선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 산하 법인별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장기 관점으로 일관된 고객경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2019년까지 글로벌 시

장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권역본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글로벌 자율경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권역본부 조직 도입은 현대·기아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강력한 변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해 본사와 글로벌 권역본부의 사업 운영체계 전반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권역 별로 한층 정교해진 현지 맞춤형 상품 전략 및 운영이 현장 주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권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경우 해외 우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이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사업 현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의 성장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역의 권역본부장은 글로벌 감각은 물론 오랜 기간 해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진영을 꾸렸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에는 브라질 법인장 이용우 부사장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관리사업부장 최동우 부사장(승진) ▲인도권역본부장은 인도법인장 구영기 부사장이 임명됐다. 기아차 ▲북미권역본부장은 현대차 사업관리본부장 임병권 부사장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법인장 박용규 부사장(승진)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현대차 사업관리본부장에는 현대차 유럽법인장 김형정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해 발령했다. /양성운 기자 ysw@

外人, 주식 '팔자' 올 들어 3兆 매도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팔아치운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8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월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 두달째 매도세가 지속됐다.

코스피시장에서 7000억원을 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규모는 623조 9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조4000억원으로 매도규모가 가장 컸다. 미국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1조8000억원, 3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7000억원), 스위스(-4000억원), 사우디(-2000억원) 등이 순매도했으며, 미국(1조8000억원), 캐나다(2000억원) 등은 순매수에 나섰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장채권 5조1090억원을 순매수해 총 3조2660억원을 순투자했다. 올 들어 유입세가 이어진 가운데 순투자 규모도 4월 7000억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보유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08조 4000억원(전체 상장채권의 6.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5G 주파수 경매 3.6조에 종료 이통사, 5G 무한경쟁 스타트!

시작가 보다 3423억원 올라
12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 경매 확보전이 이를 만에 마무리되면서 각 사들이 내년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확보한 주파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서비스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속개된 2일차 주파수 경매에서 전체 낙찰가 3조 6183억에 결정돼 경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저경쟁가격 시작가인 3조 2760억 원에서 3423억원이 뛰어오른 가격이다. 최대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에 달하는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20배 빠르다. 신호 지연시간도 짧고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해 자율주행차 등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5일부터 펼쳐진 5G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건 이유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지하 1층에 마련된 경매장에 입실해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경매가 치열했던 3.5GHz 대역은 이날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다. 블록당 968억원에 SK텔레콤, KT가 각 100메가헤르츠(MHz) 폭씩,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을 할당받았다. 주파수 위치를 결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의 휴대전화 판매 업체. /연합뉴스

정하는 2단계를 진행한 결과, 위치는 LG 유플러스는 3.42~3.5GHz, KT는 3.5~3.6GHz, SK텔레콤 3.6~3.7GHz 순으로 결정됐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GHz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이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이다.

첫날인 15일 1단계 1라운드에서 경매가 종료됐던 28GHz 대역의 경우 블록당 259억원에 각 사가 800MHz 폭을 할당 받았다.

5G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지만 확보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12월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3.5GHz 대역의 경우 12월부터 10년간, 28GHz 대역은 같은 날부터 5년 간 할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하도록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동시에 공급했다. 3.5GHz 대역의 경우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고 28GHz

대역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통신 장비 도입과 향후 5G 이동통신과 호환될 단말을 마련하는 것도 이통사의 과제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라호야에서 열린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 및 80차 무선총회에서 3GPP 및 글로벌 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50여개 업체가 5G 국제 표준을 공표하기도 했다. 5G 글로벌 표준 완성과 주파수 경매 마무리에 따라 5G 상용 단말·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장비 발주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통신장비를 발주해야 일정에 맞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5G RFP(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5G 장비 도입 준비를 본격화 했다.

장비와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해도 5G 단말이 마련돼야 이용자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5G 단말 기술요구서를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LG전자에 배포하기도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번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해 국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확보한 5G 주파수 경매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삼성전자 총매출·조세공과금 국내 비중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매출	200조7천억원	201조9천억원	239조6천억원
국내매출	20조8천억원	20조2천억원	31조6천억원
국내매출 비중	10%	10%	13%
총 조세공과금	7조8천억원	8조9천억원	15조1천억원
국내납부 비중	51%	67%	81%

해외서 매출 87% 버는 삼성전자 세금은 국내에 80%, 총 15조 납부



매출액 239.6조·순익 42.2조
전년 세금 8.9조... 70% 늘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5조1000억원의 세금을 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87% 가량을 해외에서 올렸으나 세금은 80% 이상을 국내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삼성전자 실적보고서 및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종속회사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낸 조세공과금은 총 15조1000억원이다.

전년도의 8조9000억원에 비해 70%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기록한 7조8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세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 실적 덕분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3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6%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53조6000억원으로 83.6% 급증했다.

순이익은 85.9%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납부한 조세공과금 가운데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에 낸 액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10%를 냈다. 미주와 유럽에서 8%, 기타 지역에서 1%를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조세공과금의 국내 납부 비중은 2014년 53%에서 2015년에는 51%로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 67%까지 오른 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81조원(34%) ▲유럽과 CIS 44조4000억원(19%) ▲중국 38조3000억원(16%)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31조6000억원이며 전체의 13% 정도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공과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내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납부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與 압승, 재건축 빙하기 장기화... '도시재생' 중심이동

재건축시장 지각변동

(中)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

재초환 폐지 가능성 완전 사라져
반포 현대아파트 등 '부담금 폭탄'

지방선거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일부 지역서 '규제 완화' 기대감도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을 향한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여당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더 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 당선인이 경기 부양을 담은 공약을 내걸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존재한다.

◆ 서울·경기·인천 '재건축 뒷전' 될 듯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에 칼날을 들이민 가운데 지방 정부(자치단체)까지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

이번에 당선된 수도권 시·도 지자체장의 공약만 봐도 그렇다. 서울·경기·인천에선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으로 방침이 옮겨질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 재건축 관련 공약 및 입장(수도권 및 서울 일부))

지역	당선인	소속	내용
서울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지원
인천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
강남구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등
서초구	조은희	자유한국당	재건축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송파구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용산구	성장현	더불어민주당	이촌1동 한강맨션 재건축 추진, 효창 4,5,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등
동대문구	유덕열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
노원구	오승록	더불어민주당	월계1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추진,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 사업 지원 등
양천구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프레임에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박 시장은 뉴딜 및 재초환으로 마련된 재원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등 재초환이 적용될 단지는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시장이 지난 8년간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온 만큼 한강변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 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약으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 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공약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도 비슷한 분위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보유세 개편안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보유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어찌나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에 담은 후보도 대거 당선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망이 나온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지

자체당 당선인은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구제책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에 담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약했던 후보들이 당선됐다.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심교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당선인의 공약 등에 따라) 약간의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 시장, 여당의 기조가 정반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초환 시행, 재건축 안전 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연한(30년→40년) 연장 등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강력한 정책은 시장은 잠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주거 공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조기등판하는 ‘갤럭시노트9’ S펜 앞세워 패블릿 흥행재연

프리미엄 시장 선점 위한 빠른 출시
마니아 확보제품... 위기 돌파구 모색

삼성이 갤럭시노트 신제품을 예년보다 빨리 내놓을 예정이다. ‘조기등판’하는 갤럭시노트9를 통해 패블릿 시장을 지킬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대화면 스마트폰(패블릿)인 ‘갤럭시노트9’을 8월 초에 공개하고 8월 말 경에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에서 제품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공개일은 8월 2일 또는 9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8월 9일 갤럭시노트9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일정은 예년보다 상당히 빠르다. 갤럭시노트8은 지난해 8월 23일 공개하고 9월 21일에 출시했다. 통상 가을에 출시하던 제품을 여름에 내놓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9월에 나올 애플의 새 아이폰에 앞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애플이 오는 9월 출시할 아이폰에 6.5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플러스’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3억60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고 집계했다. 삼성이 3월16일 출시한 갤럭시S9의 2분기 판매량은 좋지 않다. 업계에서는 갤럭시S9의 출시 첫해인 올해 출하량이 3000만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갤럭시S3 이후 역대 최저 판매량이다.

삼성은 판매량이 줄어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갤럭시노트9을 전략 제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는 패블릿 시장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성능 좋은 S펜을 앞세워 특유의 마니아 층을 확보한 제품이다. 큰 화면으로 멀티미디어와 게임을 즐기려는

수요층이 꾸준하기에 판매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매력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쟁자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이 611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아이폰 판매량은 5220만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량 늘어났다. 여전히 성장세인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플러스’를 통해 갤럭시노트가 위치한 패블릿 시장마저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패블릿 시장 수성 전략은 곧바로 갤럭시노트9에 반영될 예정이다. 외신 등은 갤럭시노트9의 외관은 갤럭시노트8과 비슷하며 하드웨어 구성은 갤럭시S9 시리즈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패블릿’답게 모던 것이 더 커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주요 매체 전망 가운데는 갤럭시노트9이 전작보다 1인치 커진 6.4인치 화면, 스마트폰 최초의 8GB 메모리, 이전 최대 저장공간인 256GB의 두배인 최대 512GB 저장공간을 탑재할 것이라 내용도 있다. 또한 배터리 용량도 사상 최대인 4000mAh까지 늘어날 관측도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청년들과 공유인프라로 문제해결 나서

SK텔레콤 ‘행복 인사이트 시즌2’

SK텔레콤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자사의 공유 인프라를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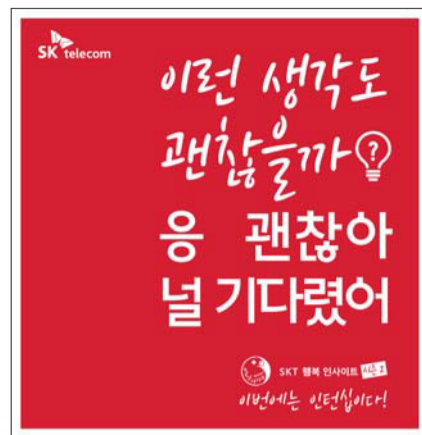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밝히는 ‘SKT 행복 인사이트 시즌2’ 프로그램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내건 주제는 ‘SK텔레콤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 진행된 시즌1은 한 뼘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테드(TED)식 강연 형식으로 공유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참여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결선 진출자 10명 중 2명은 올해 초 SK텔레콤 채용에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올해 ‘SKT 행복 인사이트 시즌2’는 SK텔레콤의 공유 인프라 활용에 대한 의지와 청년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참신한 생각이 만나는 자리다. ‘SKT 행복 인사이트’는 46년간 이어진 ‘SK 장학퀴즈’의 인재육성 철학을 계승해 소통 플랫폼 형태로 진화·발전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전 지원자(대학교 재·휴학생, 석사 1년차)는 500자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시(6월 18일~6월 25일)하는 1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는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본선 통과자 30여 명은 SK텔레콤에서 근무 체험형 인턴십을 6주간 갖게 되며, 특히 30여 명 중 우수제안자 10명은 SK텔레콤을지로본사 SUPEX홀에서 최종 발표회를 갖게 된다. 우수 제안자들은 총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도 받는다.

SK텔레콤은 20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며 함께 소통하기 위해 ‘와이I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대학생들의 소풍명소를 알아보는 ‘캠퍼스 소풍여지도’ 제작 ▲20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세상을 잇다’ 프로젝트 ▲20대의 관심사와 생생한 일상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알못북’(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너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책) 발행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남인 기자 silkni@

최태원 SK회장 ‘시카고 포럼’서 기조연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스파크랩 데모 워크 행사 일환
‘더블 바텀라인’ 경영 소개 예정

스타트업 육성업체 스파크랩은 20일 서울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시카고 포럼’ 행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조 연사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카고 포럼은 미국 시카고대의 연중행사다. 올해는 스파크랩 데모 워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최태원 회장은 시카고 포럼의 멤버로 활동하

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더블 바텀라인’(DBL) 경영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다양한 협업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스파크랩은 “SK그룹이 지난 2015년 국내 스타트업 ‘쏘카’에 투자했고, 올해 1월에는 SK 오픈콜라보센터를 여는 등 스타트업 육성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안병도 기자



LS전선이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판지위나타 AG그룹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계약

4000만 달러 투자... 케이블 공장 착공

LS전선은 인도네시아 아르타그라하 그룹(AG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G그룹은 197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10위권 대기업이다.

LS전선과 AG그룹은 총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투자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인근 6만4000㎡ 규모 부지에 자카르타시 인근 6만4000㎡ 규모 부지에 전력 케이블 공장을 착공한다. 이 공장은 2019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인프라용 가공전선과 건설·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중저

압 전선을 생산한다.

LS전선은 이 공장이 2025년 약 1억달러(약 11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전선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매년 8% 이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지난 수년간 진출을 모색해왔다”며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박찬길 기자 cgr@

LG전자, 성능·편의성 갖춘 차세대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베란다 태양광용 마이크로 인버터
효율 95.2%... 전력 손실 최소화



LG전자가 성능은 물론 편의성까지 갖춘 차세대 베란다 태양광용 마이크로 인버터를 6월말 국내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LG 마이크로 인버터’(사진)는 320W출력의 제품이다. ▲높은 수준의 변환효율 ▲설치가 간편한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 ▲쉽게 발전량 확인이 가능한 무선 통신 등 베란다 태양광용 인버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갖췄다.

공동주택 베란단에 설치하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스템은 태양광 모듈과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된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된 직류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로 변환한다. 가

정 내 220V 콘센트에 직접 연결할 수 있기에 설치와 사용이 쉽다.

‘LG 마이크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효율이 95.2%로 매우 높다.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기존 국내 마이크로 인버터 제품의 효율은 94.3% 수준이다.

설치 편의성도 높아졌다. 무게는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약 1kg로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두께 역시 31.5mm로 얇아 베란다 설치가 더 쉬워졌다. 마

이크로 인버터에 금속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해서 별도 접지 연결이 필요 없다. 시공업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치가 쉽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홀(Hole)도 오픈형으로 제작했다.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탑재했기에 발전량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제품들은 베란단에 설치된 인버터에 탑재된 액정(LCD)창이나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전력량계를 통해서만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병도 기자

LG전자 ‘스마트월드’서 BTS 테마 제공

LG전자가 콘텐츠 스토어 ‘LG 스마트월드’ 앱에서 방탄소년단 테마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최신 전략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 LG전자가 출시한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 테마를 적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LG G7 씽큐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BTS 패키지’가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모든 LG 스마트폰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BTS 패키지는 10대부터 40대까지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방탄소년단의 폭넓은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 테마는 사용자가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고르면 각각의 테마 색상과 사진으로 폰을 꾸밀 수 있게 해준다. 배경색은 블랙으로 정제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바탕화면, 설정화면, 통화화면에서는 각각 멤버의 사진을 배경으로 띄워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안전성·가성비 통하나?

물 건너 온 이쿼녹스·클리오 순항

한국지엠 이쿼녹스

‘최첨단 경량화’ 첫날 200대 계약

르노삼성 클리오

소형차 월 최고 판매실적 기록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중형 SUV 이쿼녹스와 소형 해치백 클리오가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두 차량 모두 수입차다.

이쿼녹스와 클리오는 미국 GM 본사와 프랑스 르노 본사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차량이다. OEM 수입차란 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완성차업체가 모회사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를 말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이쿼녹스는 탄탄한 주행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르노 클리오는 가성비를 앞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지엠이 지난 7일 출시한 이쿼녹스는 가격 논란속에서도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쿼녹스는 출시 첫날 200대가 넘는 계약을 기록했다.

출시부터 이쿼녹스가 국내 SUV 경쟁 모델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이쿼녹스가 미국보다 싼 가격, 최첨단 경량화 기술을 통해 강화된 안전성, 주행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데일 설리번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 부사장은 “(이쿼녹스는) 출시 당일 200대가 판매되는 등 양호하게 잘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현재 국내 도착한 차량은 45일 이내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이 이쿼녹스의 초도 물량을 9000대 가량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M의 중형급 신형 SUV 아카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쿼녹스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체 하중을 줄이면서 견고한 최적의 구조를 실현했다.

이쿼녹스는 인장강도 1000Mpa 이상의 기가스틸 20%를 포함, 차체의 82% 이상



한국지엠 쉐보레 이쿼녹스 주행모습.



르노 클리오.

에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채택해 이전 세대 대비 180kg 가벼우면서도 22% 이상 높은 차체 강성을 실현했다.

고강성 경량화 차체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이전 세대 대비 2배가 넘는 구조용 접착제와 쉐러를 사용해 차체를 보다 단단히 고정함과 동시에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했으며, 주요 부위에 격벽을 설치해 차체 강성을 향상시켰다.

뛰어난 동력성능도 갖추고 있다. 요소수 방식의 첨단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1.6리터 CDTi 친환경 디젤 엔진은 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조화를 통해 136마력의 최대 출력과 32.6kg.m의 최대토크를 낸다. 이쿼녹스 가격은 ▲LS 2987만원 ▲LT 3451만원 ▲프리미어 3892만원이다.

르노삼성 클리오도 출시 첫 달인 지난 달 756대가 팔리며 소형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클리오는 소형차 부분에서 월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같은 달 출시된 현대차 ‘2018 엑센트’는 같은 기간 387(구형 모델포함)대 판매됐다.

국내 들어온 르노 클리오는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되는 인텐스(INTENS) 트림에 동일한 선택사항과 비교할 때 약 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지만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와 3D 타입 LED 리어 콤포네이션 램프,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 II (T맵, 이지파킹, 스마트폰 풀미러링), 후방카메라, 전방경보장치 같은 고급 사양이 클리오 인텐스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된 것이 감점이다.

르노 클리오는 젠(ZEN)과 인텐스(INTENS)의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약 1000만원 낮은 ▲젠 트림 1990만원 ▲인텐스 트림 2320만원에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025년 2조 목표 향해 뿔뿔”

티웨이항공 창립 8주년

영업이익률 23% ‘고속 성장’
“작년 선포한 목표치에 순항중”

올해 창립 8주년을 맞은 티웨이항공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업계 3위(1분기 영업이익 기준)에 올라선데 이어 하반기 기업공개(IPO) 작업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비전선포식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의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9일 당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2025년까지 10대의 대형기를 포함해 총 50대의 기체를 운영하며 매출 2조원을 목표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5840억원,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정 대표가 밝힌 예상치인 매출액 5500억원, 영업이익 4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지난해 기세를 몰아 선전했다. 특히 1분기 영업

이익은 46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10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23%로 국내 6개 LCC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재무건전성 강화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공개(IPO)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한금융투자과 대신증권은 공동 대표 주관사로 결정했고 예비심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성공적인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앞둔다.

중장거리 운항을 위한 신기종 도입 계획도 이미 끝났다. 티웨이항공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기 ‘보잉 737 MAX 8’은 기존 보잉 737-800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항속거리가 더 길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발리, 중앙 아시아 등 중장거리 인기 노선 취항이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2일 대구-하바롭스크 정기편 노선을 취항한다. 하바롭스크는 지난 4월 취항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대구에서 출발하는 두번째 러시아 직항 노선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일본, 동남아 지역 등 신규 노선을 취항해 하늘길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신규 노선은 하코다테, 아사히카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IoT로 욕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욕실’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는 아이에스동서의 욕실 리모델링 브랜드 ‘이누스바스’와 함께 욕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욕실에 IoT 기술을 적용, 환풍기·비데·스위치 등 다양한 IoT 기기들을 서로 연동해 자동으로 동시 제어하는 ‘동시실행’ 및 ‘자동실행’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한 욕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욕실 조명 스위치를 켜면 비데가 스스로 켜지고, 비데에 사용자가 앉으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스마트 욕실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IoT 비데일체형 양변기와 환풍기가 포함돼있는 욕실인테리어 상품이다. 이 두 제품은 와이파이 환경이면 이통사와 상관없이 LG유플러스 IoT 플랫폼인 ‘IoT@home’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IoT 비데는 이누스바스의 인기 비데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스마트 욕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체형 양변기 ‘TW950’ 모델에 IoT를 적용한 제품이다. IoT 비데는 앱으로 자동 물내림 및 수압, 노즐 위치 등 사용자별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또 ‘예약 설정’ 기능으로 비데를 원하는 시간, 요일에 켤 수 있다.

환풍기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업 힘펠과 함께 개발한 ‘IoT 제로크’ 모델이다. 스마트폰으로 제습 및 환기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 욕실 내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6년 만에 풀체인지... 베일벗은 ‘더 뉴 CLS’

메르세데스-벤츠 9990만원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4도어 쿠페 ‘더 뉴 CLS’가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이전 모델보다 새롭게 디자인한 전면부와 뚜렷한 윤곽을 더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청담 전시장에서 더 뉴 CLS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에는 400d 4매틱과 400d 4매틱 AMG라인 등을 3분기 내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올해 안에 고성능 버전인 CLS 53 AMG 4매틱 플러스를 판매할 예정이다.

더 뉴 CLS는 최신 기술의 새로운 직렬 6기통 디젤, 가솔린 엔진 탑재와 플래그십 모델 더 뉴 S 클래스에 탑재된 반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했다.

더 뉴 CLS 400d 4매틱 모델의 3.0리터 디젤 엔진은 캄트로닉 가변 밸브-리프트 컨트롤을 최초로 적용하고 알루미늄 엔진 블록과 실린더 벽의 나노슬라이드 코팅 등의 기술로 최고 출력 340마력과 최



18일 공개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뉴 씨엘스 400d 4매틱 앞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벤츠 코리아

대 토크 71.4kg.m의 성능을 자랑하며 연료 소모량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또 AMG 라인에 합류하는 더 뉴 CLS 53 4매틱+는 3.0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 ‘EQ 부스트’로 불리는 통합 전기모터와 48볼트 전기 시스템을 더해 최고 출력 435마력과 최대토크 53.0kg.m를 자

랑한다. EQ부스트 시스템은 48볼트 전기 시스템이 더해진 전기모터로 구성돼 동력성능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 뉴 CLS의 400d 4매틱과 400d 4매틱 AMG라인이 각각 9990만원, 1억900만원이며 향후 출시될 CLS 53 AMG 4매틱 플러스는 미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SK엔카닷컴 사이버 공격 대응 우수기업 선정

국내 최대 자동차 유통 플랫폼 SK엔카닷컴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에서 자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체계 점검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매년 지속적인

로 실시해오고 있는 행사다. 지난 달 16~17일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약 38개 기업, 9000여명이 참가했다.

SK엔카닷컴은 이번 훈련에서 지속위협공격(APT), 디도스(DDoS), 모의침투 등에 대해 뛰어난 대응역량을 나타내며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양성운 기자

대출 동상이몽... 시중은행·서민들의 아우성



“빌려줄 곳 마땅찮아”

“돈 빌리기 어려워”



신DTI 도입 등 가계 빚 증가세
중소 대출도 우량기업으로 한정
서민·중소 대부업·저축은행으로

“꼭 막혔다. 금고에는 돈이 넘쳐 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있지만 가계 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A은행 여신 담당 임원)
“정기예금이 늘면서 외부 수혈을 줄이고 있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좋지만 그만큼 여신이 따라줘야 하는데 걱정이다.”(B은행 자금조달 담당 임원)

시중은행들의 공간에 돈이 쌓이면서 외부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들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가계 부채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도 우량기업으로 한정되고 있어 돈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돈이 꼭 필요한 서민과 중소기업

〈은행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계획〉 (단위: 억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일괄신고 효력 발생기간	2018.1.10 ~2018.12.31	2018.1.3 ~2018.12.31	2017.11.22 ~2018.11.21	2018.6.12 ~2019.6.11
발행예정금액	100,000	80,000	70,000	40,000
기발행금액	49,700	36,500	44,500	0
남은 발행한도	50,300	43,500	25,500	40,000
남은기간 만기도래	37,977	52,500	38,100	50,400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업은 자금줄이 막혀 있다고 아우성이다. 최고금리 연 24%의 비싼 이자를 내 가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18일 시중은행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은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순발행이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8조원, 7

조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남은 발행한도는 4조3500억원, 신한은행은 2조550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부터 1년간 4조원 발행신고가 돼 있다. 남은 발행 한도는 4조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처럼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을 이유는 많지 않다. 당장 대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2018년 5월 중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났다. 전달

(7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10조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선제적 자금조달로 이미 공간도 채워둔 상태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지난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준수를 위해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통해 고유동자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면서 발행물량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LCR 규제수준에 부합했고, 금리인상이전 진행된 선제적 자금조달 등으로 은행채 순발행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상승 환경과 은행들의 안정적인 예금 유치에 대한 니즈(LCR 및 예대율)가 맞물리면서 정기예금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기준 정기예금으로 26조3000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같은 기간에 유입된 예금 7조3000억원, 5조7000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적예금 분류

요건 강화 전후로 은행들의 국공채 매입이 지속 확대됐다. LCR 하락에도 여전히 2019년 규제 수준(100%)을 상회하고 있어 고유동성자산 매입을 위한 은행채 발행 필요성은 낮다”고 전했다.

돈 빌리기 쉽지 않은 환경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한 몫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가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제2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다.

치솟는 금리도 부담이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약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취약 계층에게 금리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자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제2 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4.9%, 1.4%로 작년 말보다 0.4%포인트, 0.3%포인트씩 상승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7월부터 '8%' 수수료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330억 가량 수수료 감소 전망

현지통화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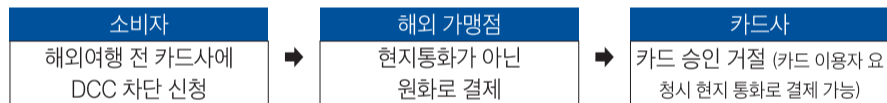
오는 7월 4일부터 최고 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해외원화결제(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33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소비자의 원치않는 DCC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 DCC 전문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다 보니 소비자는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3~8%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DCC 사전차단시스템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 (예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이용 건수	9,207	11,179	13,175	14,062
DCC 건수 (비중)	659 (7.2)	919 (8.2)	1,188 (9.0)	1,558 (11.1)
해외이용 금액	94,119	114,995	131,306	150,623
DCC 금액 (비중)	12,154 (12.9)	15,900 (13.8)	19,877 (15.1)	27,577 (18.3)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DCC로만 결제가능한 가맹점 등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DCC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DCC 사전차단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3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DCC 이용 금액 2조7577억원에 DCC 차단신청 비율 40%, DCC 수수료 3%를 가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 기간 전에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NH농협은행

신용카드 채움포인트 증정

NH농협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NH(채움)개인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채움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행결제계좌 이용 중인 고객이 농협은행계좌로 변경 시 응모 가능한 '너도 이벤트'와 농협은행 결제계좌 이용고객이 홈페이지 퀴즈에 응모하는 '나도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너도이벤트'는 선착순 3000명까지 응모 가능하고, 두 가지 이벤트 모두 8월 중 결제대금 10만원 이상 출금된 고객을 대



상으로 포인트를 증정한다.

당첨고객에게는 하나로 마트 등 농협 판매처 및 농협은행 금융 거래 시 이용 가능한 채움포인트를 최대 5만점까지 증정하며, 채움포인트는 1만점 이상일 경우 캐시백 신청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여행 성수기 '환전' 이벤트

우리은행은 여름방학과 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우리들의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과 위비톡, 위비뱅크를 통해 내국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간 동안 영업점에서 미화 300달러 상당 이상 환전 시 주요통화(USD, JPY, EUR)는 70%, 기타통화는 30%의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영업점에서 미화 1000달러 상당 이상 환전하는 고객은 무료여행자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KEB하나은행 러시아 월드컵 '현지 응원단' 파견

KEB하나은행은 월드컵 원정응원단인 '하나 리포터'의 출정식을 갖고 러시아 현지에서 응원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 리포터'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및 K리그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이 월드컵을 맞아 러시아 현지에서 파견하는 원정응원단이다. 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를 통해 약 한 달 간 진행된 원정응원단 모집 이벤트에 4만여명이 참여해 최종 4명의 손님이 응원단으로 선발됐다.

'하나 리포터'는 18일 스웨덴과의 1차전 관람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태극전사를 위한 열띤 현지응원을 펼칠 예정

이다. 스웨덴 응원과 러시아 현지 분위기 전달 등의 여정을 하나멤버스 페이스북 북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하나 리포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손님과 함께 기원할 수 있는 상품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1998년부터 20여년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해오고 있으며 2020 시즌까지 K리그 공식후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국민적 스포츠 축제 후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IBK기업은행 기술금융 사모펀드 1500억 조성

IBK기업은행은 성장성이 유망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IBK-BNW 기술금융 2018 사모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성장금융,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함께 출자하고 기업은행과 BNW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용한다.

주요 투자대상은 기술신용평가등급 5

등급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으로 운전자금, 시설 확충, 해외 진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도약 지원과 은행의 투자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KB증권

어린이 위한 문화나눔 행사

KB증권은 서울 강남구 KB아트홀에서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KB증권 여직원회 '여울림'은 작년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과 임직원들의 참가 후기가 좋았던 'KB증권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행사를 올해에도 이어서 지난 16일 진행했다. 다문화·새터민·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100여명을 초청해 나눔의 의미와 문화체험을 선사하며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김정아 여울림회장은 전래동화와 지구촌 소식 등을 통해 아이들과 직접 토론하며 나눔의 의미는 무엇이며, 함께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ELS 1종 50억 규모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2일 오후 1시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22호'는 홍콩항셱(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7.10%(연 5.7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 시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손영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선물거래 수수료 최대 반값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선물 거래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4일 이후 최초로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온라인 고객 또는 올해 거래 실적이 없는 온라인 개인고객이다. 이벤트를 통해 KOSPI200 선물(주잔)과 KOSPI200선물(CME 야간)의 거래 수수료가 0.0015%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된 수수료 적용은 올해 말까지다. 이벤트 참여 및 문의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원금손실 '녹인' 구간 1조... ELS 투자주의보

(Knock-In)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31.7조원
H지수 ELS 급증... 풀림현상 유의

올해 1분기 추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이 30조원을 웃돌았다. 특히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이 급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31조7000억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규모는 25조3000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 잔액은 95조9000억원이다.

1분기 ELS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23조4000억원이 발행됐다. 지난 2015년 1분기 24조2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었다.

ELS는 대부분 공모(79.8%)에 원금비보장형(91.5%)으로 발행됐다.

발행형태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비중이 93.3%로 절대적으로 높고, 2개 이상의 기초자산 결합상품이 89.0%를 차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유로스톡스50(Euro Stoxx50) 19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지수(15조7000억원) ▲코스피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7.1분기			17.4분기			18.1분기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19.9	24.0	64.6	27.4	32.9	55.2	23.4	18.7	59.6
DLS	7.7	6.4	33.1	6.7	7.4	34.8	8.3	6.6	36.3
전체	27.6	30.4	97.7	34.1	40.3	90.0	31.7	25.3	95.9

*해당기간에 상환(중도해지 및 일부상환 제외)된 종목의 총 명목금액.

/자료=금융감독원

200(9조1000억원) ▲S&P500(9조1000억원) ▲나케이225(6조7000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H지수를 기초로 한 ELS 발행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조원이나 급증한 반면 홍콩항셱지수(HSI) 발행규모는 7조9000억원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H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지난해 말로 끝나고, 변동성이 큰 H지수가 HSI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LS 상환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했다.

조기상환이 16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7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유로스톡스50 지수가 다소 하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일부가

조기상환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 대규모 상환으로 잔액 규모도 크지 않았다.

3월 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59조6000억원이다.

1분기 DLS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8조3000억원이 발행됐다.

사모(82.3%)와 원금비보장형(48.1%)의 발행 비중이 전년 동기 보다 각각 7.0% 포인트, 3.9%포인트 높아졌다.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 기초 DLS의 비중이 40.0%로 가장 높고, 혼합형(30.1%), 신용(24.6%), 환율(3.9%), 원자재(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DLS 상환액은 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36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

익은 6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ELS 조기상환이 지연되면서 상환규모가 축소됐고, 일부 외화 발행 ELS의 경우 환율하락에 환차손도 발생했다.

ELS 투자이익률은 2.6%(연환산 3.6%)으로 악화됐고, DLS 투자이익률은 1.8%(연환산1.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에 따른 이익은 3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 유로스톡스50 등 주가지수 하락으로 부채 평가액이 감소했고, 채권 헤지운용 이익은 늘었다.

ELS 9014억원, DLS 848억원에서 원금손실이 가능한 녹인(Knock-In)이 발생했다. ELS는 주로 H지수(8941억원)를, DLS는 코스피200(842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ELS 발행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과거 대규모 녹인이 발생했던 H지수 ELS 발행이 급증했다"며 "증권사 간담회 실시 등으로 기초자산 다변화, 자체점검 강화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cu.co.kr

삼성증권 "北 원산, 랜드마크로 개발될 것"

삼성 리서치 포럼

관광지·항공물류 등 잠재력 높아

북한 원산이 랜드마크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라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증권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삼성리서치포럼에서 "원산은 금강산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 외에도 해상 및 항공 물류의 중심지로서도 잠재력이 높아 남북경협이 상진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북 경협사업이 경제통합 형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선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기업을 지원할 금융시스템이 특수은행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져야 민간자금 유치할 수 있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변혁과 미래 그리고 제언'을 주제로 열린 삼성리서치포럼 행사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반도의 변혁과 미래 그리고 제언'을 주제로 열린 삼성리서치포럼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삼성증권

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원산개발협력은행의 활용방안 제언'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유승민 팀장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안정을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고향이자 유일하게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원산이 랜드마크로 개발될 가능

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원산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항만, 철도, 물류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을 지원할 특수은행, 즉 '원산개발협력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개발협력은행의 설립 방법으로는 우리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요국 정부개발원조(ODA)가 공동출자하는 모델을 제시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협력은행과 북한정부, 국내 전략적 투자자들이 각종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국내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구성훈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완화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업계최초로 북한전담리서치팀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

코스닥 종목 313개, 사상 최고가 경신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 올해 삼성바이오로지스, KB금융, LG생활건강 등이 사상 최고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2098개 가운데 313개(14.92%)가 연초 이후 이달 14일 사이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시장별로 보면 이 기간 지수가 6.41% 상승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체 1216개 종목 중 213개(17.52%)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이에 비해 지수가 2.27% 하락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 882개 중 100개(11.33%)만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최고가 경신 종목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의 경우 평균 48.89%였고 코스

닥은 평균 43.82%였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화학(18개), 의약품(17개), 금융(16개) 업종에서 최고가 경신 종목이 많이 나왔다.

코스닥에서는 기타서비스(23개), 반도체(22개), 제약(22개) 순으로 최고가 경신 종목이 많았다.

시가총액 상위사 중 최고가를 경신한 코스피 종목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7위), KB금융(9위), LG생활건강(12위), SK(19위), 하나금융지주(25위) 등이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메디톡스(3위), 바이로메드(4위), CJ E&M(7위), 셀트리온제약(8위) 등이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김민호 기자

호반건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호반건설은 18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78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1668가구(예정),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3368억원이고, 2021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단지에서 도보로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의곽순환도로, 군포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인근 금정역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경찰서지구대 등 생활 기반 시설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호반건설

도 근처에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회사 신용도, 브랜드, 사업제안조건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시공사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北·中·러 접경지 경제특구 재추진... 남북 전기·가스 연결

정부, 러시아와 TSR 요금 논의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추진

우리 정부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유라시아 지역과의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을 러시아와 논의하고 향후 TSR과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쪽에서 단절된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철도 외에도 러시아~북한~남한간 전기, 가스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14대 중점추진 과제>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구축

1.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2.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3.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4.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5.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6.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신시장 개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7.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8.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9.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10.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11.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12. 농수산물 분야 진출 활성화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7.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8. 인프라, 환경 협력 확대
9.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10.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11. 보건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12. 농수산물 분야 진출 활성화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13. 문화·체육·관광·협력 확대
14.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활성화 및 인력양성

[자료=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14대 중점과

제를 확정했다.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농수산물 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별도로 러시아의 원전기술을 도입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도 논의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 에너지, 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특구 개발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험이다.

경제특구는 그동안 추진했다 미뤄져 온 신의주·단동, 나선·훈춘·하산, 나선·하산 프로젝트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을 감안해 북한을 오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이나 훈춘-하산-나선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해상운송 외에도 TSR, 중국횡단철도(TC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대륙철도와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도 추진된다.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물류의 경우 해상운송은 43~50일 가량이 걸리지만 철도 복합운송을 할 경우 25~35일로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TS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될 것을 감안해 우리측의 동해북부선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릉역과 고성 제진역을 잇는 110km 구간의 동해북부선은 앞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전력망과 가스관 연결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도 공동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인 자금 조달에도 물꼬를 트여 주기로 했다.

북방위 이태호 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상대 국가의 신용도가 낮고 현지 결제시스템은 투명성이 부족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기존에 쓰지 못한 3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50억 달러가 가능한 자원으로 금융부분이 경제협력에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창업, 러시아 원전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는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에는 기존의 과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선거결과 기쁜 한편 두렵다... 성과로 말할때”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들에 유능함 보여줘야”
靑, 직원들 회의장면 생중계



18일 오후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연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직원들에게 유능함, 도덕성, 태도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여당에 많은 힘을 실어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교차한다면서 실장,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했다.

특히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세종청사간 이원 국무회의를 진행하던 여민1관 대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진행해 청와대 전 직원들이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회의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거운 두려운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부탁 말씀을 줬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

으로도,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협업에서도,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자세를 꼭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높은 도덕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더 높고,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되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덧붙였다.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

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법 등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태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이 다 청와대를 대표하고, 저를 대신하는 (국민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행정요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를 저를 대신해 받는 것이다. 친절하게 대응하면 친절할 청와대가, 친절하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면 고압적인 청와대, 권위적인 청와대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30년 넘은 소상공인 ‘백년가게’ 육성

중소벤처부, 혁신기업 발굴·지원
자금조달 돕고 관광공과 협업 홍보



정부가 ‘백년가게’ 육성에 적극 나섰다.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 2만2000여개에 달하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 경쟁력, 서비스 및 마케팅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내놓았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100% 보증비율과 고정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특별보증을 신설해 자금 조달을 돕는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도 0.2%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글씨가 선명한 인증현판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식신’ 등 유명 O2O플랫폼 및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도 협업해 기업 알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더라도 지속성장 가능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수 백년가게 대표의 강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업승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도 실시해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입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승호 기자]

탈핵선언 1년, 원전-신재생 사이 ‘불안한 동거’

신고리 5·6호 건설 진행하지만
‘원자력 에너지 점차 축소’ 결론
2030년 재생에너지 20%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퇴역식에서 탈핵선언을 한 지 19일로 만 1년이 됐다. 탈핵선언 1년 동안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탈핵 행보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중단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건설 중인 원전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당시 약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나온 결론은 ‘건설은 진행

하지만 원전은 점차 축소하자’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3020’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안이 주 내용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가입



작년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근 초등학교생들. [뉴스]

국 원전 발전량은 2192TWh(테라와트어워)에서 1876TWh로 약 14% 감소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24TWh에서

1243TWh로 약 2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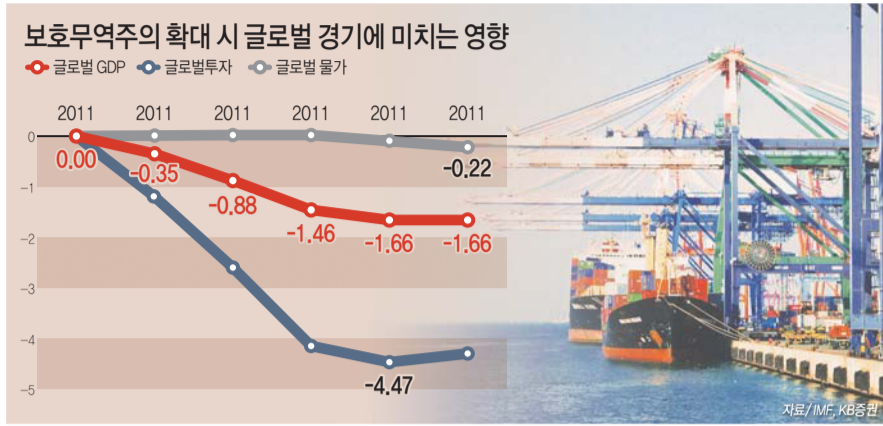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계획으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 사업백지화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천지·대진은 아직 건설도 하지 않았다. 신고리5·6호기 중단에 비해 논란이 적다. 다만 예정 부지의 19%가 진행된 천지 1·2호기는 다시 부지매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토지거래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박찬길 기자 cgr@

美·中 무역갈등, 新아편전쟁 양상... 韓경제 중독위기

(성장률 급락)

보호무역확대면 수출·수입 감소
韓, 중국 경제의존도 비중 커
中 GDP 1%p 하락엔 성장률 하락
직·간접 차질 규모 0.5% 추정



G2 갈등이 세계 각국의 무역전쟁으로 퍼진다면 한국 경제는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韓 0.50%p ↓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규모가 1500억달러가 되면, 미·중 GDP가 0.3~0.4%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르면, 전 세계 GDP가 1.4%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

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을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포인트(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

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 무역전쟁과 외환시장, 신흥국 통화 변동성 확대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IMF에 따르면 A라는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모두 A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한다. 특히 일방적 관세부과보다 보복관세 부과때 성장률 하락 충격은 더 크다. 예를 들어 국가 A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차에 성장률은 0.09% 감소하는 반면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국가 A의 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 관세 부과는 국가 A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는 '교역 악화→투자 위축→전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IMF의 모형(GMIF) 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GDP는 1년차에 이미 0.35% 감소하고, 3년차에는 1.46% 감소, 5년차에는 1.66% 감소한다.

OECD도 '매크로 경제의 일반적인 평가(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

economic situation)'란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유럽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14% 이상 감소하며, 수입은 7% 인פק 감소한다. 미국 경제규모는 2% 가량 줄어든다. 중국도 수출입은 12% 감소, 경제규모 역시 2% 감소한다. 유럽의 수출입규모와 경제규모 역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입 규모는 6% 감소, 경제규모는 1.5%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리암 카슨(Liam Carson)은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부상은 신흥국의 중장기 무역 전망에 위험 요소이며,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서 무역 전쟁 그 자체가 '퍼펙트 스톱(초대형 경제위기)'인 이유다.

특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IMF는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경고해 왔다.

KB증권 김두연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G2 무역분쟁은 글로벌 중요 중앙은행들의 상이한 행보를 더욱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 자본의 유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흥시장국 통화들의 변동성 확대는 이전보다 커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취미에 지갑 여는 2030 '문센족' 온라인 몰도 '워라벨' 변화 바람

워라벨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온라인몰에서도 소비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20~30대 여성 직장인들이 신(新) '문센족'으로 급부상하면서 취미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것.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옥션이 최근 한달(5월 11일~6월 10일)동안 공예, 미술, 음악 등 2030세대 여성들의 취미용품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워라벨' 열풍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문화센터의 취미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온라인몰에서 취미용품을 구입하는 2030 여성들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예나 미술 관련 용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문화센터,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한 목공예 강좌가 인기를 끌며 관련 상품 판매가 8배(767%) 이상 경증 뛰었다. 의자, 책상 등 가구류부터 작은 사이즈의 도마나 시계, 스피커 등 선물하거나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좋은 제품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어 취향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다.

관화용품도 4배(286%) 가까이 급증했다. 간단한 문구를 비롯해 캐릭터, 일러스트까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 손수건이나 예코백 등 패브릭 제품 디자인에 활용이 가능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여진다. 취미로 유화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늘며 유화세트(233%) 판매도 증가했고, 학창 시절 사용했던 파스텔도 3배(220%) 이상 경증 뛰었다.

2030세대 여성들의 대표 취미로 꼽히는 캘리그라피 관련 상품은 3배(218%) 이상 급증했고, 이밖에 소묘연필(38%)과 수



채화물감(18%), 드로잉용품(17%) 등도 모두 두 자리 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문화센터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악기를 배우는 이들이 늘며 악기 등 관련 상품 판매도 증가했다. 클래식기타는 동기간 5배(450%)이상 경증 뛰었고, 색소폰 판매도 3배(238%)이상 늘었다. 작은 크기의 하모니카도 인기 취미생활로 부상하며 지난해 보다 47% 증가했다.

키덜트족과 나 홀로 여가족으로 인해 매출신장률을 보인 상품도 있다. 티몬에 따르면, 가장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인 상품은 무선RC와 드론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174% 올랐다.

집에서 오롯이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음반과 DVD매출도 144% 신장됐고,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보드게임도 인기다. 티몬에서 올해 상반기 보드게임 매출은 108% 상승했다.

임석훈 티몬 리빙본부장은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관련 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반도체 빼면 비실비실... 3개월 연속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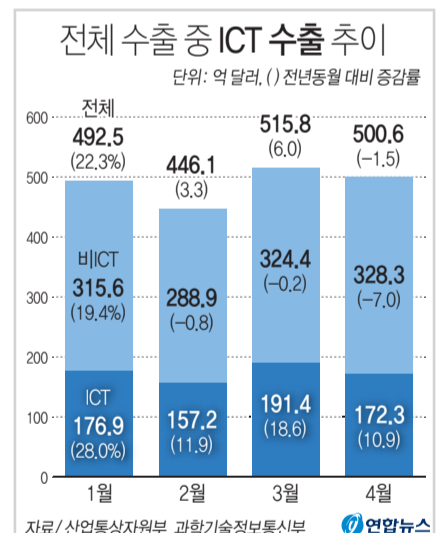
4월 ICT 수출액 전년 비 10.9% ↑
ICT 제외 수출액은 7.0% 감소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외하면 수출이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 ICT 수출액은 172억3천만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했다.

ICT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품목에 한정해 산출된다.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 반도체 경기와 밀접한 움직임을 보인다.

4월 전체 수출(500억6천만달러)은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1.5% 역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CT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선반'한 것이다.

ICT 수출은 2016년 12월부터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성장상을 구가하고 있다.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 허가 재개

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추가 보완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 완료해 허가 심사가 본격 재개된다.

셀트리온은 최근 FDA에 허쥬마(CT-P6)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보완자료를 공식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FDA는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보완서류 접수 후 통상 6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의 허가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과 5월 FDA에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를 각각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최근 FDA로부터 두 제품의 허가와 관련, 지난해 5월 실시된 FDA 정밀조사 결과와 연관되어 CRL(Complete Response Letter)를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리톡시마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와 마찬가지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 경쟁에서도 론칭 계획에 따른 순조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연내 허쥬마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3.1%)한 것도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조 덕이 컸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ICT 수출을 제외하고 보면 수출 탄력은 올해 들어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4월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을 빼면 수출액은 328억3천만달러로 쪼그라든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7.0% 감소한 수준이다.

비(非)ICT 수출은 올해 2월 288억9천만달러, 3월 324억4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0.8%, 0.2% 감소한 데 이어 4월까지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비ICT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기는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증가율도 1월(22.3%) 이후 2월 3.3%, 3월 6.0%, 4월 -1.5%로 둔화하는 모양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미국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두 제품의 미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대형제약사 테바(TEVA)를 통해 트룩시마와 허쥬마를 미국 시장에 조속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Wenger®
Swiss Made
Watches

125 SINCE 1893
 A SWISS COMPANY



 **WENGER®**

wenger.co.kr

“네이버 기사배열, 편집인 + AI 조합이 바람직”

네이버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

편집 알고리즘 공개·검증 필요
언론사 뉴스 ‘전달 역할’에 집중
가짜뉴스·악성댓글 대처에 총력

포털업체들이 게시하는 뉴스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포럼의 결과물이 나왔으나 논란을 잠재울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관련한 논의사항과 활동결과의 발표를 위해 포럼 공청회를 18일 서울 중구 YWCA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에서 5개월간 이뤄진 내용이 공개됐다.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에서 포럼이 다룬 주요 쟁점은 ▲완전 자동화 편집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인링크·아웃링크 방식 전환 문제 ▲편집 방향성 ▲네이버 기사 배열 관련 편집 원칙 및 방향성 제안이다.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 공청회가 18일 서울 중구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또 네이버 역할 부분에서는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관련 정책 ▲네이버 뉴스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공개성, 소통의 문제 ▲네이버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관계의 문제 ▲네이버의 정체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이용자 조사 요약을 발표한 김경희 위원은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네

이버(39%), 다음(38.5%), 구글(32.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이슈 파급과 여론형성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 기사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7%, 그렇지 않

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6.5%, 언론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조사되며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의 기사 배열 방식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인공지능(AI)이 조합해 기사배열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포인트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 언론사에 편중된 기사를 배열하는지 안 하는지와, 포털서비스를 언론으로 봐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표본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김 위원은 “이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기사 배열에서의 투명성 확보, 저널리즘 원칙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성철 공론화포럼 위원장은 네이버 기사 배열과 관련한 제안에서 9가지 원칙 중 하나로 “네이버는 기사 배열과 관련해

언론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의 확산, 지역 저널리즘의 약화 등 뉴스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술적, 경영적, 법적 노력을 다하며 이를 위해 언론사,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시했다.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포럼은 지난 1월 12일,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당, 이용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여해 발족한 협의체다.

지난 5개월 간, 월 2회의 정례 회의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리뷰 스터디 ▲네이버뉴스 기사 배열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자체 연구 조사 ▲네이버뉴스 방향성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해왔다.

글·사진=구서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중기부

예비 청년 창업자 1500명
최대 1억원 ‘바우처’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해 기술창업을 돕는다.

특히 창업상품권, 즉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품구매나 재료비, 마케팅비 등 창업시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0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 15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하되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보건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원회(핀테크 등)를 비롯해 10개 산하기관이 뽑는다.

또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엔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각각 지원 대상을 추린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대1로 연계한 이후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

다만 최대 1억원인 바우처는 현금이나 닌 전용카드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작년 사이버 공격 피해 77조... GDP 8%·기업당 300억”

한국MS 사이버보안 보고서

“간접적·추가적 손실이 더 심각”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8일 ‘사이버보안 위협 보고서’ 발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분석과 함께 실제 기업 내부에서 보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 보안의 실태를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는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의 최신 버전에서 공개된 동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가장 주목되는 동향은 ▲봇넷(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PC를 좀비 PC로 감염시킨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대의 컴퓨터에 지속해서 영향) ▲피싱(사이트와 메일로 위장해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 ▲랜섬웨어(문서뿐 아니라 운영체제까지도 모두 암호화해 금품요구) 등으로 3가지다. 사이버범죄에는 이 3가지 유형이 북



김기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담당 부장이 ‘디지털 세계의 위협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국내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록스트앤설리번과 공동으로 조사한 사이버 보안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공격으로 국내 기업이 입은 직간접 손실액은 약 720억달러(약 77조원)로 한국 국내 총생산의 5%에 달한다. 국내 대형 기업

의 경우 기업당 평균 약 300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한 최승환 프록스트앤설리번 이사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빙산 효과’로 표현하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 손실보다 빙산 아래 감춰져 있는 간접적·추가적 손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기업의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고객 소실 및 기업 평판 훼손, 일자리 손실과 같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보안 의식에 대한 실태도 제공했다. 인식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 중 보안사고를 경험했거나(10%), 사이버 공격 사고여부조차 모른다(29%)고 응답한 경우가 39%에 달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에 가장 큰 과제 중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파트너를 통해 구현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략을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월평균 약 9억3000만 개의 사이버 위협을 분석, 감시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안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승환 이사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요소로 차별화함과 동시에 조직 내 교육과 같은 보안 기반 투자, AI 및 자동화를 통한 보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조언했다.

글·사진=구서훈 기자

태양광·원격점포관리... 에너지 절감 나선 편의점

GS25 “5년간 전기료 500억 감축”

최적화된 관리로 소평환경도 개선

GS25가 태양광 발전 설비, 원격 점포 관리 시스템(SEMS)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한다.

GS25는 지난 4월 제주도 지역 2개 점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제주도 지역을 시작으로 평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GS25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경우 연간 약 7800KW, 금액으로 환산시 연 약 66만원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GS25는 지난 2015년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SEMS를 구축하고 현



SEMS가 구축된 GS25 직영점에서 시설지원팀과 점포 직원이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전력사용량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GS25

재 4700개 점포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SEMS는 본부의 메인 서버를 통해 전국 점포의 냉장·냉동 장비의 온도 및 냉난방기기, 간판 점등, 실내조명 조절, 전력 사용 관리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

도록 IoT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최첨단 종합 점포 관리 시스템이다.

SEMS를 통해 경영주와 본부의 시설 관리 담당자는 모바일이나 웹으로 점포의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실시간 냉장비 온도 확인 및 실내 환경 컨트롤, 장비의 이상 여부 조기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GS25는 각 점포의 조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에너지 절감은 물론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GS25는 점포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단가는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방냉동설비를 본부비용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S25는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를 맞아 태양광 발전 설비,

고효율 냉방/냉동 설비 그리고 SEMS가 에너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SEMS를 구축할 경우 GS25 한 점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7%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계약 전력을 낮추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금액으로 환산 시 연간 약 13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GS25는 향후 2022년까지 SEMS를 전 점포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태양광 발전, 고효율 장비 도입까지 더하면 향후 연평균 약 100억원, 5년간 총 500억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홍 GS리테일 시설지원팀장은 “GS25는 동종업계 최초로 SEMS를 설치하는 등 점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정책브리핑



지난해 aT센터에서 열렸던 '2017 농식품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 현장 모습. /농식품부

농식품부·aT, 해외 외식업계 바이어 상담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외식업계 바이어 국내조정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초청된 외식업계 바이어 20개사와 국내 외식기업 18개사가 상호매칭해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바이어들은 현지에서 외식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 외식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우량업체 대표들이다. 초청기간 동안 바이어들은 외식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한 시스템과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우리 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바이어 중 중국 베이징과 하북성에서 다수의 외식업체를 경영하며 하북성 경영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귀영화 하북난백문화전보유한공사 이사장은 "한국 특유의 세련된 레스토랑과 커피 체인점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좋은 사업 협력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현장노동청 10곳 설치... 국민 목소리 경청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제2기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춘천 등 9개 도시에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현장노동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의 운영기간동안 298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날 김영주 노동부장은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이홍씨 등 3개팀 5명 '젊은 건축가상'

올해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 수상자에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 김이홍, 남정민 등 3개팀 5명이 선정됐다. 이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상해 온 상이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주호(34), 임지환(34), 조성현(36) 등 30대 건축가들로 이뤄진 경계없

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는 부동산 개발 논리에 대응해 상황과 조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완성도 높은 해결방안과 결과물을 보여줬다. 건축가 김이홍(38)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한 세심한 관찰, 개념 설정과 구축의 경계를 오가는 집요한 작업 과정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건축가 남정민(41)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경계면과 그 사이 공간에 대한 해결책을 공업화된 단위 개체로 구축해 보여줬다. /오진희 기자

해수부, 美 등 현지 3곳에 '수출 지원센터'

정부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확대에 나섰다. 미국 동부, 태국, 말레이시아에 3개소를 추가 개설해 수출 확대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수산물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수출계약·통관 관련 법률서비

스 등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중국 상하이, 칭다오,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대만 가오슝, 미국 LA, 일본 도쿄 등 5개국에 7개소의 수산물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미국 뉴저지 수산물수출지원센터는 미국 동부지역에서의 한국 수산물 수출을 돕고, 서부의 LA 수출지원센터와 협력해 한국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부동산보유세 얼마나 세질까 22일 개편안 공개·정책토론회

종합세율·공시지가 조정 등
재정개혁특위, 28일 최종 확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첫

토론회를 통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야 당의 반발을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지가 인상 등의 절충안이 접쳐졌다.

그러나 세율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에 전달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달 중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오는 9월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

재판거래 의혹 등 특수 1부에 배당
법관 13명·전 행정처 차장 등 소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와 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임명돼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뉴시스

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내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줄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

/이법종 기자 joker@

APEC 17개국 해양쓰레기 해결 맞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모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앞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이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 노보텔에서 'APEC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은 칠레, 페루,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APEC17개 회원국의 해양쓰레기 담당자 및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은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해양쓰레기 등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훈련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쓰레기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참가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제나 잼벡(Jenna R. Jambeck) 교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국제기구, NGO 등 이해관계자별 해양쓰레기 대응정책,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 등에 대한 발표 및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APEC 해양쓰레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강연자들은 분과별 좌장으로서

논의를 이끌고, 각국 대표들은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론 강의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동향, 폐어구 관리정책 등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세플라스틱과 폐어구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에 피해를 끼치는 등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막바지 진통

이사회 구성·경영책임 등 이견

현대차, 2대 주주로 1300억 투자
광주시, 시민·수익 구조 등 고려
오늘 예정이던 투자 협약식 연기

합작법인 방식으로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협상에서 세부적인 내용 합의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경영책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장치와 지역사회 공감대 마련 등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19일 할 예정이었던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을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합작법인 이사회 구성, 경영책임 부담, 위탁 생산 차량 가격 등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12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당장 임금 하향 평준화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는 노조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에 자동차 생산을 위탁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새 합작법인에 2대 주주로 참여해 전체 투자금액의 19%가량인 약 13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서 1천cc 미만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차는 또 최근 '레오니스'라는 이름의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 이름이 앞으로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경형 SUV의 모델명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차가 광주공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현재 국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을 위탁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반값 연봉 근로자의 위탁생산으로 기존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생산 중인 차종이 아니어도 노사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조의 반발을 잘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사업성 분석과 이사회 운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광주시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마련, 위탁생산 방식의 수익 구조 정착, 기업적 마인드와 공공성을 동시에 가진 합작법인의 성공적 운영 등 과제가 많다.

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정중제 행정부 시장을 단장하는 하는 협상단을 꾸려 현대자동차와 매주 3차례 만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냈다.

그동안 위탁 생산하게 될 차량 품목과 규모, 생산 방식, 이사회 구성,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미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의향서 제출 전부터 합작법인 설립과 차량 생산 방식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광주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을 하기로 예고까지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대주주로 함께 참여하는 합작법인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돌출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본체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녹색물결 일렁이는 **차밭**

관광농차수도보성에서 녹차체험이 한창이다. 지난 16일 보성군 보림제다 농원에서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서명주 지부장) 회원 50여명이 차밭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문성환 기자 m8527188@



먹거리 풍부한 **'다향울림촌 감자축제'**

전국최대 감자 주산지 보성군 회천면에서 감자축제가 열렸다. 지난 16일 회천면 다향울림촌 광장에서 김철우 민선7기 보성군수 당선인과 김영희 감자축제 추진위원장이 관광객들과 함께 감자요리 부스를 찾아 음식을 맛보고 있다. 수미 품종은 찜서먹는 간식용으로 식감이 포근포근 하여 건강식품으로 최고로 손꼽힌다. 철분, 칼슘, 마그네슘, 무기성분과 비타민 등을 골고루 함유하여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웰빙 기호식품이다. /문성환 기자

무등산 국립공원, '2000만' 탐방객이 찾다

국립공원 승격 5년만에 돌파

안내표지판 856개 신설 등 정비

지난 2013년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 수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누적된 무등산 탐방객 수는 2000만2914명이다.

국립공원 승격 원년에는 396만8497명, 2014년 381만8275명, 2015년 360만9717명을 기록했다.

2016년 357만1712명, 지난해 351만3576명,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152만1137명이 무등산을 찾았다.

연간 350만명 이상이 꾸준히 무등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무등산 탐방객 수는 한려해상(715만명), 북한산(595만명), 설악산(369만명)에 이어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정상 정복형 수직 탐방에 쏠린 등산습관을 저지대 수평 탐방 등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프로그



무등산 탐방객

램을 운영 중이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안내표지판 856개를 새로 설치하고, 재해문자 전광판을 4곳에 구축했다.

증심·정풍·만연 등 탐방지원센터 9곳을 운영하며, 58종 536개 응급처치 및 구조장비를 비축했다.

쾌적한 탐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10곳을 신축하고 8곳을 정비해 모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 81억8천900만원을 투입, 전체 탐

방로 165km 63개 노선 가운데 50.7km 43개 노선을 정비했다.

1988년 전남 영암 월출산 이후 25년 만인 2013년 3월 4일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높이에 4012종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걸맞은 품격과 위상,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j@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준비 기획단 구성

총무·정책·공보 등 취임 준비 총괄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7기 전남도지사 취임준비 기획단' 구성을 마쳤다.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대신 도정 현안 점검과 공약 구체화, 취임준비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취임준비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 단장은 제12대 전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진철 동신대 교수가 맡아 총무, 정책, 공보 등 10여명의 실무진과 함께 취임 준비 전반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당선인을 지원 및 보좌한다.

지방행정과 농업·수산, 문화·관광과 신재생에너지·R&D, 도시계획·환경, 복지·여성, 해양·조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온 17명이 위촉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완식, 김철신 전 전남도의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김 당선자는 "취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철저히 일하는 기구로 구성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가 분들을 모셨다"며 "도정 업무보고 자리에는 자문위원들 외에 각 분야별 관련 단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셔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기에 더해 도정 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광주 북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 3.6억 확보

광주 북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돼, 국비 3억596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멀티인재 양성 프로젝트', '무등산 자락 힐링캠 조성'과 '농상생 커뮤니티 일자리 프로젝트' 등이다.

지난 3월 1차 공모사업 선정까지 더하면 북구는 총 10억5천4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북구는 6월중 광주고용노동청과 수행

기관인 동강·조선대 산학협력단, 빛고을 행복마을경제문화공동체 등 3개 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본체영 기자

전남도의회

26일 의정활동 마무리

전남도의회가 오는 19~26일 임시회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전남지사가 제출한 전국 최초 '전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을 처리한다.

의원들은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의 운영 규약 일부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도 보고받는다.

임명규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지난 4년간 도민 대변자로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썼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는 더욱 성숙한 지방분권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전자담배 논란 3R, 식약처 주장 반박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위해성 감소 확인”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헛갈리는 흡연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임상결과 발표

美 흡연자 984명 아이코스 사용
6개월 후 암 발병 물질 43.5% ↓
“식약처, 타르수치 측정방법 미흡”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시판 중인 궤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글로·릴)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는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로 인해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이코스 최신 임상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인체 노출 반응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아이코스 위해성 감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대규모 임상연구는 지난 8일 ‘위험감소담배제품(MRTP)’과 판매 승인을 검토 중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추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국내 관련 부처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PMI의 인체 노출 반응 연구는 미국 성인 흡연자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496명이 아이코스로 전환하



18일 마누엘 피취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과학연구 최고책임자가 타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고, 나머지 488명은 일반담배 흡연을 유지했다. 6개월 동안 이들의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아이코스로 전환한 흡연자들은 8가지 신체 평가지표(주요 임상 위험 평가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특히 5가지 주요 임상 위험 평가지표는 계속 흡연한 사람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이코스를 사용할 경우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Total NNAL’ 물질은 일반담배를 피울 때보다 43.5% 감소했다.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FEV1 %pred’는 1.28%pred 차이가났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인 ‘HDL

-C’ (3.09mg/dL), ‘WBC Count’ (-0.420 GI/L), ‘sICAM-1’ (2.86%), ‘11-DTX-B2’ (4.74%) 등도 아이코스를 이용할 때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8-epi-PGF2a’ (6.80%), ‘CO Hb’ (32.2%) 수치도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설명했다.

마누엘 피취 PMI 과학연구 최고책임자는 “이번 아이코스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연기 없는 제품의 위험도 감소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연구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일반담배 흡연에 비해 아이코스로 전환하는 것이 담배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분석 결론의 해명을 촉구했다. 식약처의 분석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견해를 무시하고 타르 중심 제품 비교 및 측정방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자체 연구결과와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9종의 함유량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담배보다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타르수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 수치만으로 유해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도 타르에 대해 “타르는 담배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 수치는 잔여물의 단순 무게(mg)이므로 독성물질과 그렇지 않은 잔여물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을 비롯한 해외 보건기관들이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일반담배 연기와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며 타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타르

수치를 계산할 때 제품의 특성상 수분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측정 방법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담배의 연기와 달리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수분량이 80%가 넘어 정확한 수분량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과정에서 증발량이 늘게 되고, 그 증발한 수분량이 NFDPM (타르) 수치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이미 궤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분들이나 앞으로 이를 고려하는 흡연자들에게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흡연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궤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경고그림은 소비자들에게 담배제품에 따라 상대적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두 개의 회오리판’ 필립스코리아 에어프라이어 출시

필립스코리아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존 에어프라이어의 회오리 바퀴판 기술을 발전시킨 ‘트윈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 (모델명 HD9743)를 선보이고 있다. 트윈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는 기존 열 반사 회오리판을 기름 튜브 방지 회오리판을 추가로 장착, 고온의 공기를 빠르고 원활하게 순환시켜 더욱 바삭하면서도 기름이 최대 1.4배가 제거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요리를 가능케 했다.

/손진영 기자 son@

대웅제약, 신약개발 드라이브... 연구조직 개편

**기능중심 팀에서 익스트림으로 전환
센터장 체제로 변경해 전문성 강화**

대웅제약은 신약개발 가속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조직 개편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하나의 연구과제를 분명한 목표로 삼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능중심의 팀 조직을 익스트림 팀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연구본부장 중심의 조직을 센터장 체제로 변경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웅제약 연구조직은 신약센터, 바이오센터, 신제품센터와 CTO전략팀, 비임상개발팀의 3센터 2팀 체제로 운영되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세포 등 2개의 익스트림 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신제품센터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전략인 플랫폼 기반 기술을 활용한 ▲데포 플랫폼(Depot platform)을 익스트림 팀으로 신설했다.

한편 연구조직은 센터장 체제로 개편하면서 센터별 독립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약센터는 서울대 약학박사를 거쳐 21년간 대웅제약에서 신약연구·개발을 맡아 온 박준석 센터장, 바이오센터는 포스텍 생명과학 박사 출신인 12년간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공정개발에 매진해 온 유종상 센터장, 그리고 신제품센터는 서울대 약제학 석사를 거쳐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등에서 14년간 개량신약 및 차별화 제형 연구를 담당해 온 김관영 센터장이 맡았다.

/박인용 기자

종근당, 취약계층 비만환자 무상치료 지원

비만치료용 위풍선 ‘엔드블’ 시술

종근당은 최근 대한비만연구의사회와 저소득층 고도비만환자 치료 지원사업인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캠페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비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은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에게 비만치료용 위풍선인 엔드블 무료 시술을 지원한다.

엔드블은 비만치료용 위풍선으로 물과 공기를 주입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간단한 위내시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시술 전·후에 별도의 입원이 필요 없고, 시술시



지난 11일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협약식에서 종근당 BH사업부 김진규 이사(왼쪽)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

간이 10분 내외로 짧아 환자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이나 장유착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식사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체중감량을 돕기 때문에 6개월 후 기기를 제거한 후에도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다.

/박인용 기자

**그린카-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업 지원 MOU**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부산 대표 창업기업인 브라이트클럽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부산 대표 창업기업인 브라이트클럽 소속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모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그린카의 법인 맞춤형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국 2800여개 그린존(차고지)의 약 6000대 그린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은 기자 ysw@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 강좌 개최

29일 혈뇨·방광암 관련 강연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의과대학 1층 김옥길 홀에서 ‘인공방광 이야기: 혈뇨와 방광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방광암과 인공방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방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건강강좌는 ▲혈뇨와 방광암(송완 인공방광센터 교수) ▲인공방광수술 안전한다?(이동현 인공방광센터장·사진) ▲수술 후 관리



(박혜진 인공방광센터 전문간호사) ▲인공방광수술 후 성생활(정우식 성재활클리닉 교수) ▲인공방광·방광암환자의 식생활(정겨운 영양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어질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박인용 기자

맛보다, 영양보다, 가격보다 #신선도 #안전성

롯데마트, GAP로 “안심하세요” 이마트는 ‘저스트 프레스시’ 런칭

(농산물 우수관리)

소비자 최우선순위 안전성·신선도
마트·이커머스 신선식품 판매 사활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유통업체가 ‘신선식품’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발표한 식품 구매 행동을 분석한 결과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안전성과 신선도다. 그 다음 맛, 영양, 가격순이다. 이에 따라 마트와 이커머스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트, 신선함과 안전성 직접 확인하세요!

롯데마트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도를 지난달 말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GAP 인증 제도는 각종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다양한 위해 요소를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환경변화 등으로 GAP인증의 필요성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마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식품안전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활어화·초밥의 판매 기한을 제조 후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며, 양념계장과 훈제연어 식품, 꼬막 등 7개 품목은 8월 31일까지 판매를 금지한다. 아울러 폐점 후 점포별 야간점검을



GAP 인증 농산물 판촉전을 진행하는 모습(왼쪽)과 롯데마트 ‘하이젠 마스터’가 식품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 /롯데마트·롯데쇼핑



롯데마트·롯데쇼핑

실시, 작업장 및 조리도구 청결상태, 냉장·냉동고 온도 등 셀프 체크리스트를 각 점포에 배포해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한다.

이마트는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 ‘Just Fresh(저스트 프레스시)’를 런칭했다. 이마트 바이어가 직접 산지와 생산자, 생산시기, 생육법 등을 꼼꼼히 따져 엄선한 상품들로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건식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에는 고객들이 구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한 포인트를 명시했다. 마트 측은 산지발굴이나 바인파워 확보에 있어 오랜 영업노하우를 내세워 이커머스를 뛰어넘을 것을 예고했다.

◆온라인몰,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승부

온라인몰은 빠른 배송과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신선식품을 전달하고 있다.

롯데슈퍼의 온라인 배송 전용센터 롯

데프레시센터는 온라인 쇼핑 고객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품목을 최초 약 4200여 품목에서 6000여 품목으로 확대해 ‘오프라인 슈퍼마켓’에 준하는 상품라인을 구축했다. 전날 밤 2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사이 집 앞 식탁까지 배송하는 ‘오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와 M O U를 맺고 농협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 중이다. 농협 안전농식품물류센터에 쿠팡 전용 신선·냉동 물류시스템을 만들고 로켓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티몬 슈퍼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신선식품으로까지 판매영역을 넓혔다. 현재 판매중인 상품 1만 4000여종 중 신선·냉장·냉동식품이 1600여종에 달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선식품의 매출성장률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397%를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통시장 먹거리, 롯데백화점에서 만난다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 진행

롯데백화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8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해 우수 먹거리를 선보이는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행



사 마진도 최소화했다.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은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점포가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 첫 번째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 특설매장에서 총 6개 소상공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롯데백화점 식품팀 소속 바이어들은 이번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전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찾아 경쟁력 있는 먹거리 상품을 발굴했다.

이번 본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대표적인 참여업체로는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던 남대문 시장의 ‘김진호 달인호떡’, 남대문시장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온 ‘중앙 왕족발’, 1988년부터 이어온 중부시장 맛집 ‘큰집 떡집’ 등이다. /신원선 기자

쿠론, 가심비 공략 핸드백 ‘블랭크블랑’ 첫 선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이하 코오롱FnC)에서 전개하는 핸드백 디자이너 브랜드 ‘쿠론’이 가심비를 내세운 ‘블랭크블랑(BLNKBLANC)’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블랭크블랑은 쿠론의 기존 고객층보다 젊은 20대 초·중반을 타겟으로 한 신규 라인이다. 세계로의 여정과 관심을 기본으로 매 시즌 새 여행지를 선택, 그곳이 주는 다채로운 에너지와 감성을 자유롭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쿠론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동시대적이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미니멀한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대중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색감, 소재 변화



쿠론 블랭크블랑 48 토트 모델킷. /코오롱 FnC

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예정이다.

2018 봄·여름 시즌 테마인 LA 컬렉션은 총 22종의 핸드백과 6종의 액세서리로 구성되며, 가격은 5만원선부터 20만원선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동원F&B 프리미엄 HMR ‘퀴진’ 론칭

동원F&B가 서양식 요리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퀴진’을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랑스어로 ‘셰프의 요리’를 뜻하는 브랜드명 ‘퀴진’은 전문 셰프가 만든 수준의 요리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퀴진’은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집에서 맛있고 품격 있는 요리를 즐기는 식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탄생한 소비자 맞춤형 가정간편식 브랜드다.

‘퀴진’은 ‘더블 스테이크 오리지널’(냉장·냉동), ‘더블 스테이크 치즈’(냉장·냉동), ‘치즈 크리스피 핫도그’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박인용 기자

AK몰, 결제·반품·직구 서비스 확대

고객 편의성 위한 3대 키워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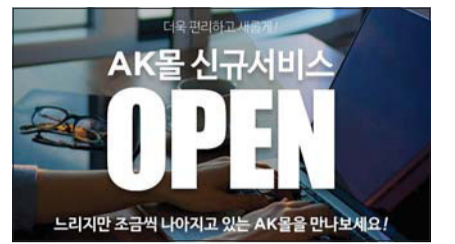
AK플라자가 운영하는 종합온라인쇼핑몰 AK몰이 고객 쇼핑 편의성 증대를 위해 결제, 반품, 해외직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AK몰은 19일부터 AK페이 서비스, 편의점 반품 서비스, AK 해외 직구관 서비스 등 3가지 신규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AK페이 서비스’는 AK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 연결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자주 사용하는 계좌 정보 저장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상품구매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상품을 결제할 때마다 카드번호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해 더 빠르고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 반품 서비스’는 가까운 CU편의점을 통해 상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한 신규 서비스다. AK몰 사이트에서 반품 접수 후 CU편의점을 방문해 반품할 물건을 보내는 방법과 CU편의점의 택배 단말기를 이용해 접수와 배송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고객이 직접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반품 처리를 할 수 있어 택배사를 통해 반품 처리하던 기존 절차보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AK 해외 직구관 서비스’는 AK몰의



해외 직구관 카테고리를 신설, 해외 유명 의류, 생활, 가전, 뷰티, 식품 등을 선보이고 간편한 관부가세 결제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직구할 경우 외국 배송 대행지 선택, 영문 주소 입력, 관부가세 납부 등 복잡한 절차를 구매자가 모두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AK 해외 직구관을 이용하면 해외 상품 결제 후 개인통관고유 번호만 입력하면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한국의 고객 배송지로 배송까지 완료해 준다.

AK몰은 신규 서비스 오픈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할인행사와 페이백·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간 동안 AK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 적립 및 첫결제 1000원 추가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편의점 반품서비스를 이용하면 CU편의점 2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AK해외 직구관에서 15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AK특가 상품 전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무더운 여름 ‘할리스 카페케이션’에서 쉬세요~” 할리스커피가 여름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할리스커피 무교점에서 ‘카페케이션’을 제안하며 ‘굿 트래블 워드 할리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롯데칠성 ‘오픈 이노베이션’ 홈페이지 개설

롯데칠성음료가 열린 소통의 창구인 ‘오픈 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국내 1등 음료기업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롯데칠성음료 공식 홈페이지의 ‘오픈 이노베이션’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주제는 원료, 디자인, 포장재, 브랜드 네이밍 등 제품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유통 및 물류, 홍보 및 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롯데칠성음료와 협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공동연구 및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매매, 라이선싱, 투자 등 제안자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제안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든지 자유형식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한 아이디어의 검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채택한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자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롯데칠성음료는 내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일부를 공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외부의 제안을 받는 ‘질성이 원하는 아이디어’ 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뒤집어버려!’ 오비맥주, 영동대로서 거리응원전

월드컵 기간 내 다양한 행사

오비맥주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고 월드컵 본선의 판도도 뒤집어버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뒤집어버려!’를 월드컵 마케팅 주제로 정한 카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국민적 열기와 감동을 재현하는 취지로 이번 대규모 국민 참여 응원전을 기획했다.

카스는 응원 열기를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와 코카콜라, 아디다스와 협업해 월드컵



카스 월드컵 패키지.

/오비맥주

을 주제로 매 경기 당일 4시간 전부터 다양한 사전 행사를 펼친다.

카스와 함께 젊음의 도전 정신을 담아 ‘뒤집어버려’ 음원 제작 프로젝트를 선보인 힙합 레이블 AOMG의 박재범, 사이먼디, 로꼬, 그레이를 포함해 청춘을 대표하는 인기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스는 대규모 응원전과 함께 짜릿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응원 열기 조성을 위해 코엑스 광장에 상시 부스를 운영한다. 카스 판매 부스인 ‘뒤집어바(Bar)’를 포함해 스크린 축구 게임, 포토월 인증샷 이벤트를 선보인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번 거리 응원전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열띤 응원과 간절한 바람이 월드컵의 판을 뒤집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서울경찰청과 ‘교통문화 캠페인’

CJ대한통운은 1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정승원 경사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브레이크 풀린 차량 온몸으로 멈춰 세운 시민에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채 비탈길을 돌진하던 내려가던 차량을 온몸으로 멈춰 세운 황창연(50, 사진)씨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진도군청 공무원인 황창연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퇴근을 하던 중 진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이 갑자기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학원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생 여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는 기어와 제동장치를 허술하게 해놓은 사실을 모른



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몸을 반쯤 차 안쪽으로 집어넣은 황씨는 기어를 바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채 아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황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달려가 차 문을 잡고 한 쪽발로 버티며 차량을 세워보려 하

당겨 적극적으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황씨는 차량에 매달려 멈추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튕겨져 나가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황씨는 “아이들이 타고 있어 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단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6월 19일 (음 5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60년생 하나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72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하자. 8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하자.
- 소** 4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 6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7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하자. 8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 호랑이** 50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으니 조금 참고 기다리자. 62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74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된다. 8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둬라.
- 토끼** 51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3년생 가족간에 공과 사를 다룰 일이 생긴다. 75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7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 말** 52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64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76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주의. 88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 뱀** 53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65년생 돼지띠와의 계약은 잘 이루어진다. 77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날. 89년생 작은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 말** 54년생 올라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다. 66년생 거울인가 했는데 매화가 피었으니 희망이 보인다. 78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90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 양** 5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6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을 하는 것도 좋다. 79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91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 원숭이** 56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68년생 금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서두르지 마라. 80년생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92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 닭** 57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69년생 작은 먼지가 눈물을나게 하니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81년생 초대된 손님 아닌 것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9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다.
- 개** 5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7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82년생 오랜 작성이 드디어 나에게 돌아온다. 94년생 욕심을 부리면 일이 헛되어 성사되기 힘들다.
- 돼지** 5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1년생 횡재수가 있거나 지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95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해 보자.

김상회의 四季

자녀 사주 알고 계시는지요?

“체질을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음식이 도움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 아버지들은 거의 감수 수준일 것이지만 옛날과 달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지만 사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입장에서 아이의 건강에 남달리 신경을 쓴다면 아이의 사주를 조금은 알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음양오행은 동양의학의 뿌리라고도 같다. 오행은 서로 상생과 상극의 성질을 갖는데 사주에 타고난 음양오행에 따라 개개인의 체질이 결정된다. 음양오행을 알면 조심해야 할 질병, 몸에 좋은 음식 등을 알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사주와 음양오행을 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과 체질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식약동원(食藥同原)이라는 말은 의학의 근원처럼 쓰이고 있다. 먹는 것과 약은 같다는 의미인데 음식이 약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는 말이다. 아이들은 흔히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걸 즐기는데 당장 입에서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빠들은 그런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흔히들 비싸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서 막연하게 몸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체질을 알면 고기가 무조건 좋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아이가 화 체질이라면 된장이나 미역 같은 음식이 좋고 단백질을 공급할 때도 콩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 같은 음식이 좋다. 목 체질은 과일을 좋아하는 식성이다. 복숭아나 배 등이 몸에 잘 맞고 마늘이나 양파, 고추 같은 자극적 양념을 좋아한다. 금 체질은 간이 튼튼하다. 술이 강해서 과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려서부터 주의를 주면 평생의 도움이 된다. 음식은 봄철에 맛이 좋은 냉이나 숙 그리고 근대 같은 쓴맛이 나는 음식이 몸에 좋다. 평일에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술 한 잔 하느라 아이들과 같이 못한 아버지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주말에 맛있는 외식을 하며 아이들을 달랜다. 그러나 지나친 외식은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다. 맛있는 음식 위주로 골라서 먹다보니 과식을 하고 비만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좋은 건 주말에 집에서 아이들과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서툰 어도 아이 체질에 맞는 음식을 함께 만들다 보면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아이들과의 소통도 쉬워진다. 몸이 귀찮기는 하지만 그것만 빼면 손해 볼 게 없다. 타고난 체질을 알아두면 외식을 할 때도 이집 저집을 떠돌지 않게 된다. 건강도 지키고 맛도 찾는 환상의 조합이 가능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5				8	4	9
8			9		5			6
3								5
	3		8				9	
		3		4				
	8			2			5	
4								2
2			6		7			1
9	6	3				4	7	8

7								5
		2	5		3	8		
	8		1		6		3	
	4	6	8		1	9	2	
	2	5	9		7	1	6	
	6		4		9		7	
			3	7		5	2	
2								6

스도쿠 정답

8	1	5	9	6	3	2	7	4
1	8	6	2	7	9	5	4	3
2	9	5	8	4	1	6	3	7
5	9	6	7	1	8	3	2	4
1	8	1	9	6	5	2	7	4
7	6	3	1	8	5	4	2	9
5	2	8	1	7	9	6	4	3
9	1	5	4	6	2	7	8	3
6	7	8	9	2	5	1	4	3
9	6	7	8	1	5	2	4	3
1	8	2	5	9	4	6	7	3
5	4	5	6	7	8	9	1	2
7	9	1	4	6	5	2	8	3
8	5	4	7	9	1	2	6	3
1	2	6	1	5	8	9	7	4
2	4	9	6	1	7	8	5	3
6	7	8	4	5	2	1	9	3
5	1	9	7	8	2	6	4	3

문제 제공= 보스

창업 자금운영 계획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의 3요소 중 하나인 자금, 자금을 조달해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정부기관의 정책자금부터 신용, 보증, 담보를 이용한 대출, 청년 또는 여성가장 지원 자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창업자금, 신용도, 매장 입지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쉽게든 어렵게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창업에 도전했다고 하더라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두어야 한다.

창업에 따른 소요자금은 크게 점포, 시설비, 기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금을 5 : 4 : 1 법칙에 입각해 산출해야 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점포임대비용으로 50%, 시설비용으로 40%, 기타 운영비로 10%가 소요될 수 있는 비율로 창업자금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아이템 특성에 따라 점포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시설비 비중이 높은 아이탬도 있다. 예를 들어 총 투자비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점포 구입비용이 높은 1층 10평 규모의 점포를 얻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시설 투자비용이 4000만원이 소요되는 아이탬 중 상품의 원가나 소요 경비 등을 산출하여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을 점목시켜야 한다.

반대로 점포비용이 낮은 3000만원에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상권이라면 시설 투자비용에 중점을 두어 5000만원으로 점포의 규모나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상품의 원가 소요경비 등을 산출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을 점목시켜야 한다. 그러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창업 이전에 단계별로 자금활용계획을 세우려면 5 : 4 : 1의 법칙에 준하여 할 것이다.

장사의 성공 여부는 점포의 목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점포 구입비용이 60~70%를 차지한다면 투자자치나 점포 운영 수익으로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70% 이상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차입자금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대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됨을 명심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건설정책 박사)



현대차 노사, 지역아동 희망나눔 지원기금 전달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역아동 희망나눔 사업'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현대차 김창환 울산총무실장, 강정구 노조 사회연대실장, 배익철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한화큐셀, 인터솔라 유럽 2018 참여
한화큐셀은 '인터솔라 유럽2018'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터솔라 유럽2018은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유럽 내 최대 태양광 전시회다. 세계 4대 태양광 전시회로 꼽힌다.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꾸린다. 고효율 모듈부터 상업·주택용 솔루션까지 폭 넓은 태양광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큐셀

이젠 경제다



기지 수집
김승호
(산업부)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때가 없었다. 가게 열고 처음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휴대폰 가게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인이 최근 전화 통화에서 한 녀드러다.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최근같이 돈 벌기가 힘에 부쳤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화기 너머 들려온 지인의 목소리였다. 경제가 심상치않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우선 이를 잘 설명해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6달 연속 20만 명대를 밑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한창 일 할 나이인 15~29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가 훌쩍 넘는 청년실업을 악화는 개선될 기미 없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부정적 파급효과만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받아 살림이 편하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니 못살겠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글로벌화라는 명분으로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기업·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표가 나질 않고 있다. 들어온 기업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 추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아예 문을 닫고 짐을 싸는 분위기다.

외국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 청사진만 가득한 드넓은 새만금과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는 시화호는 낚시꾼들로 넘쳐난다.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가계 자산 형성, 소득분배 등은 온데 간데 없이 국내 경제가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경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자매결연 마을서 일손돕기 봉사
NH농협은행은 18일 허충회 부행장과 리스크관리부 임직원 20여명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가시리마을에서 포도봉지씨우기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일손돕기에는 이 지역의 남양농협 임직원들도 함께해 농협 인직원 간 교류의 한마당이 되기도 했다. /NH농협은행



신세계면세점, 블루밍 캠페인 수익금 3천만원 기부
신세계면세점이 지난 15일 회원동 본사에서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진행한 '블루밍(BLUEming) 캠페인'을 통해 구성된 기부금 3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오티스타(AUTISTAR)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블루밍 캠페인'은 신세계면세점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 캠페인이다.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왼쪽), 이완기 오티스타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동아쏘시오홀딩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MOU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한국 내 베트남 문화 홍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사업회사 및 판매 제품의 베트남 현지 투자와 진출 기회, 기타 상호 관심 분야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이부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이원돈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추철규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 이하준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장 임영아
 - ◆국가안전보장연구소 △실장 △북한연구실장 김일기 ◇팀장 △기획팀장 김현희 △운영지원팀장 박승일 △전산팀장 남상희
 - ◆서울주택도시공사 △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신재준
 - ◆충북도 ◇5급 전보 △ 감사관실 음창규 △

- 청년정책담당관실 전영미 △ 자치연수원 권혁미 △ 환경정책과 임근목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장 김성기 △ 식의약안전과 지용석 △ 치수방재과 이종기 △ 바이오정책과 김홍식 △ 수질관리과 이기영 △ 재난관리과 김관수 △ 소방종합상황실 이상윤 ◇5급 승진 △ 여성정책관실 안용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이상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김민희 △ 세정과 이순희 △ 일자리 기업과 김영욱 △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 파견 임세중 △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 파 오기택 △ 교통정책과 임영택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광복근 △ 산단개발지원과 정훈 △ 충북도립대학 최상화 △ 복지정책과 신영희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 이충희 △ 북부출장소 산업자원과장 광용관 △ 보건정책과 광경희 △ 화학물질안전원 파견 안세연 △ 기후대기와 정철기 △ 기후대기와 임태태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진훈 △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김봉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허혁**
- ◆충북 옥천군 ◇5급 전보 △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 ◆이투데이 △ 자본시장부장 이채용 △ 온라인뉴스부장 한지은

- 부음**
- ▲ 박철용씨 별세, 정은영(HSBC 한국대표)씨 장인상 = 17일 오후 7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02-2227-7500.
 - ▲ 한계인 씨 별세, 김강자(전 경찰서장)·김영자·김미숙·김인태 씨 모친상, 김한국·송금산·김권필(동강대학교 부총장) 씨 장모상 = 18일 오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062-951-1004.
 - ▲ 정영수씨 별세, 정석용(전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원)·석태(부산대 연구교수)·석교(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 부지점장)·석춘(KCA 이사)씨 부친상, 손수호(인덕대 교수)씨 장인상, 정대연(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씨 조부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02-2227-7556.
 - ▲ 최종용씨 별세, 최성환(뉴스1 경제부장)씨 부친상, 홍선미(수원 매회중 교사)씨 시부상, 조영식(영화기계 대표)·유석주(대우전자 그룹장)·김창선(대전도시철도공사 대리)씨 빙부상 = 18일 광주광역시 만평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62-611-00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206
	2002년5월28일 제39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46호

#AI 도입 #금융권채용 주춤 #청·장년 고용률 격차 ↑

키워드로 보는 상반기 취업 트렌드

고용률 50대 75.7%·20대 28% 서류검토서 시가 표절여부 확인 '채용비리' 금융권, 가이드라인 도입해 하반기 채용에 적용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대와 50대 고용률에 15%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일부 대기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구인에 활용하는 반면, '채용비리'로 주춤했던 금융권은 하반기 고용을 늘릴 전망이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18일 '상반기 취업시장 트렌드 결산'을 내고, 금융권이 채용비리 대책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반기 채용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대형 시중은행과 주요 지방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영향으로 상반기 채용이 다소 주춤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달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모범규준 초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올해 상반기 '채용비리'로 멈춰있던 금융권 취업시장이 하반기부터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대기업이 서류전형에 도입한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전망이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10.5%를 기록한 가운데, 20대와 50대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17.7%포인트를 보여 어두운 취업 현실을 보였다. /유투이미지

기시험 도입과 함께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사람인은 규준안이 가이드 라인 성격이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확정된 기준을 내규에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다. 다른 시중 대형 은행도 하반기

에 채용을 보다 늘릴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AI의 역할은 서류 검토에 집중돼 있다. 서류검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AI 도입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상반기 채용에서부터 백화점, 정보통신 등 일부 계열사에서 지원자

가 서류를 제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인재 부합도, 직무 적합도, 표절 여부 등을 가린다.

SK C&C는 AI플랫폼 '에이브릴'을 이번 상반기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서류평가에 시범 도입했다.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기본 질문과 탐색질문, 직군별 심층 구조화 질문 등을 인공지능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다만 활용 초기 단계이므로 AI전형 분석결과는 면접관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5월 10.5%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50대 이상과 20대의 고용률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 고용률 격차는 지난 5월 20대 58%와 50대 75.7%로 17.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대별 인구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고용 격차는 당분간 좁혀

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반기는 공공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입사원 680명을 채용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 최다 인원을 임용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에는 유사 분야의 '합동채용'이 늘었다. 응시경쟁률을 낮추고 중복합격에 따른 결원발생을 최소화해 취업 인원을 늘리고, 채용기관의 비용 절감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3월에 공공기관 67곳이 합동채용에 참여했다. 하지만 전체 응시 기회가 줄어 취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실력'보다는 '눈치싸움'이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청년 고용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도 쏟아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정규직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인이 구직자 464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3%가 '아직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범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학생들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선거 좌담회에서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준생 "첫 월급 223만원 받았으면..."

예상 월급여액은 198만2000원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남성 첫 희망급여가 평균 240만7000원, 여성은 20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학력이 낮을수록 희망급여액도 낮아져 ▲고졸 취준생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 ▲2~3년제 대졸 206만8000원 ▲4년제 대졸 238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 급여액은 목표 기업유형에 따라 서로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준생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공기업 목표 취준생은 평균 229만1000원 ▲외국계 기업은 230만5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은 250만6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목표 그룹간 희망 월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취준생이 예상하는 실제 급여액은 희

망 급여액보다 25만2000원 낮은 19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월급여는 ▲대학원졸업자 242만4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 224만원, ▲남성 212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예상 월급여가 가장 낮았던 그룹은 ▲중소기업 목표 취준생으로 179만4000원 ▲고졸자(180만4000원) ▲2~3년제 대졸자(184만7000원) ▲여성(185만1000원) 등으로 19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취준생 2명 중 1명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부모님에 대한 보답을 꼽았다.

응답자의 49.1%가 '첫 월급 로망'에 대해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라고 답했다. 이는 모든 성별, 학력, 목표기업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1위였다.

2위는 '적금통장 개설(14.8%)'이 차지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7.3%)' '고생한 나를 위한 소품(6.0%)' '가족들과의 외식(6.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눈치 안보고 돈 써보기, 탕진잼(5.2%)' '친구·지인에게 월급 털기(4.7%)' '재테크(2.0%)' '월급 인증샷(1.2%)' '뮤지컬 등 문화생활(1.2%)' 등을 첫 월급 사용처로 꼽았다. /이범종 기자

입사 포기하게 만드는 질문 '호구조사·성차별'

잡코리아 취업준비생 1119명 설문 10명 중 7명 "불량질문 회사 포기"

구직자 10명 중 7명이 면접 후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회사 취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사이트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면접 경험 있는 취업준비생 1119명에게 설문한 결과, 입사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으로 '성차별적 발언(여성 1위)'과 '호구조사(남성 1위)'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에서 취준생들은 '입사를 포기하게 하는 면접 질문이 있다(97.9%)'고 밝혔다.

입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면접 질문은

남성의 경우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와 같이 ▲지원자 본인이 아닌 주변을 확인하는 질문(40.6%) ▲뭘 확인하려는 지 알 수 없는 압박을 위한 압박질문(37.5%) ▲원하지 않은 인생 훈수를 두는 질문(33.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여자치고는~'처럼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질문·발언(65.8%) ▲지원자 본인이 아닌 주변을 확인하는 질문(50.1%) ▲업무능력과 관계 없는 개인 신변잡기를 묻는 질문(37.0%)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사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는 질문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 ▲사전테스트·포트폴리오를 가장한 아이디어 제공 요구 ▲뼈

딱하게 느껴지는 질문 ▲종교·정치색 등 신념을 묻는 질문 등이 있었다.

취준생 68.4%는 설문에서 '면접을 보고 난 뒤 면접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62.9%)보다는 여성(70.9%)에게서 높았다.

반면 취준생의 20.7%는 '입사 포기 결정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후회한 순간으로는 '계속 채용공고를 뒤지며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27.8%)' '내가 판단한 것보다 회사가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22.8%)' '기다렸던 기업에서 입사제외가 오지 않을 때(19.6%)' 순이었다.

/이범종 기자

직무중심 채용 사례 공유 '잡코리아 HR포럼' 개최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2018 제5회 잡코리아 HR포럼'을 21일 잡코리아 본사에서 개최한다.

잡코리아 HR포럼은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5월 시작했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각 1회씩 진행되고 있다.

5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직무 중심의 채용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삼양홀딩스, 후지제록스, LG전자 인사·채용담당자가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생생한 직무중심 채용프로세스 사례를 공유한다.

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국내 우수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서울대 총장 38년 만에 '의대 교수'

의과대학 강대희 교수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제27대 총장 최종후보로 강대희(55·사진) 의과대학 교수를 18일 선출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이날 오전 호암교회 회관에서 신입 총장 선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를 통해 강 교수를 최종후보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로부터 추천받은 강 교수, 이진우(62)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우일(63)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평가한 뒤 최종후보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했다. 결선투표에서 강 교수는 재적이사 15명의 과반인 8표를, 이진우 교수는 7표를 얻었다.

앞서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한 결과는 강대희 교수 1위, 이진우



교수 2위, 이우일 교수 3위였다.

강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1994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 연구부처장,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 서울대 의과대학장 등 학내 여러 보직을 맡았다. 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교수는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 양성 ▲혁신적 연구 지원 시스템 ▲다양성 존중 ▲실질적 복지 확충 ▲1조2천억원 재정 확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용수 기자 hys@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LH - 장애인고용공단, 착한 일자리 맞손

장년장애인 채용, 고령 입주민 맞춤형돌봄 서비스

신규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공사(LH)가 손을 잡고 장년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나서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진행될 장년 장애인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에 참여할 27명의 장애인을 최근 채용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총 30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에 지적 장애인 33명, 청각장애인 11명, 시각장애인 10명, 뇌병변 장애인 7명 등 총 87명의 장년장애인이 신청해 이중 27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우선 올해 12월 21일까지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지난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열린 장년장애인 ‘홀몸어르신 살피미’ 발대식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하게 된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은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내 거주 홀몸어르신 상시 안부전화 및 방문을 통한 말벗 등 살핌 서비스 ▲상담 시 접수된 의견 정리 및 어

르신별 특이사항 관리 ▲홀몸어르신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LH 내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홀몸어르신 현황 조사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인구 중 50대 이상 장년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구의 7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타 연령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3.5%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술 발달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증

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장년장애인의 신규 직무 개발과 접목한 사업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김민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차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년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발하고자 LH와 함께 추진한 사업”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인 김정복(63·가명)씨는 “오랜만에 다시 일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에 참석한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해양환경관리공단

‘바다가 미래다’ 주제로 펼쳐진 해양박람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 참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고 1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에서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공단은 보호대상해양생물 보호,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활

동을 펼쳤으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해양 환경 전시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단에서 직접 개발·특허 등록된 자갈세척기 모형 시연을 통해 해양오염방지 전문기술을 소개하는 등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과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에 앞장서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주총 거수기’ 국민연금이 달라졌어요

주총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반대율 2배... 목소리 높여

국민연금이 올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고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하여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이 2029건(79.2%), 반대가 524건(20.5%), 중립 또는 기권이 8건(0.3%)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결권 비율은 지난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비교할 때 올 1분기 반대율은 갑절에 달한다.

올 1~3월 반대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 순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이 내달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이 같은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투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

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일컫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를 계기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

aT, 눈높이 맞춤 사회적가치 창출 나서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 발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18일 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aT 센터에서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만족,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 민간기업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aT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사회적가치 창출 기본계획, 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aT는 지난 3월 사회적가치창출 업



aT 사회적가치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지난 15일 1차 자문회의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aT

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사회적가치창출부’를 신설했으며 4월에는 노사합동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한마음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사회적가치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회적가치창출 역량분석, 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가치 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부서별 사업방향을 공사전체와 일치시킬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우정사업본부

워킹맘 우대 든든적금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워킹맘을 우대하는 ‘우체국 마미드든적금’을 18일 출시한다.

‘우체국 마미드든적금’은 실명의 개인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월 1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가능하며, 1인 1계좌에 한해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3년 만기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연 2.2%이며, 일정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받아 최고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 외에 부가서비스로 이 적금에 가입하고 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면 전국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우체국쇼핑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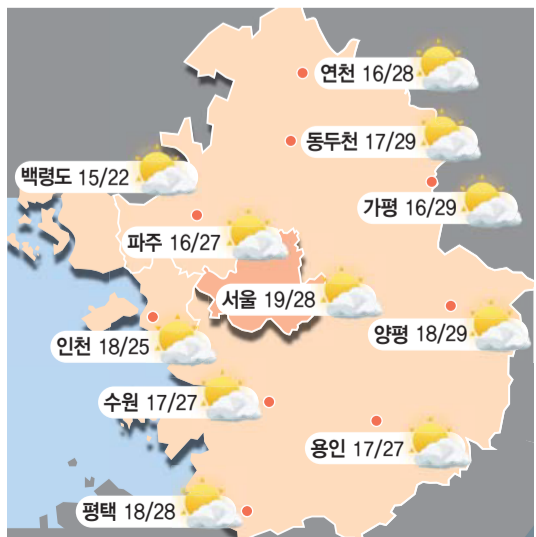
해돋이 / 05:11 | 해질 / 19:56

6월 19일
음력 : 5월 6일

수도권 날씨

28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작년 국제회의 하루 2건 688회... '마이스' 메카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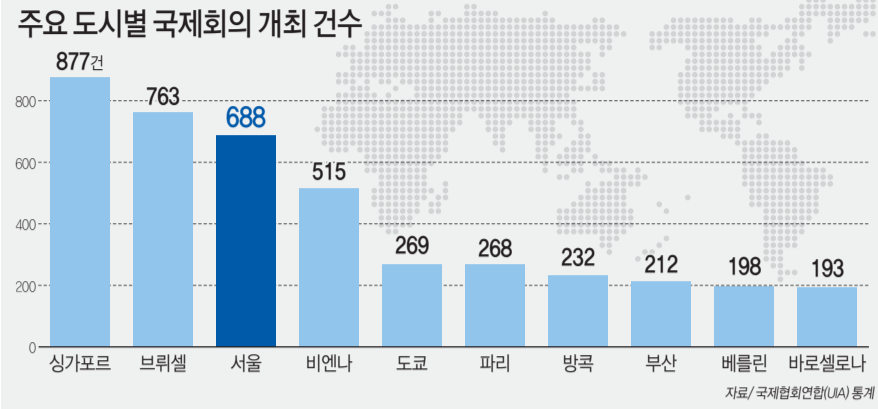
(MICE)

전년비 31% ↑ ... 세계 3위 기록
국가별 실적 2년 연속 1위 유지

서울시가 마이스(MICE) 메카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이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 그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제협회연합(UA)이 발표한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에서 지난해 서울이 전년 대비 31%(162건) 상승한 688건으로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역대 최대 성과다. 또한 세계 3위 기록은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통계 결과는 지난해 사드(THAA



D)갈등 및 북핵 위기 등 대외적 환경으로 인한 위기요인에도 서울 MICE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MICE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주요 도시별 순위는 1위 싱가포르

(877건), 2위 브뤼셀(763건), 3위 서울(688건), 4위 비엔나(515건), 5위 도쿄(269건) 순이다. 부산의 경우 세계 8위로 총 212건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실적도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2017년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297건을 기록했다. 전체 국제회의 중 53%(688건)가 서울에서 이뤄졌다. 국가별 순위 2, 3위로는 싱가포르와 벨기에가 꼽혔으며 각각 877건, 81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회연합은 1960년 이래로 57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발표해 온 권위있는 단체다. UA에서 인정하는 국제회의는 국제기구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회의(1일 이상, 50명 이상이 참가)이거나 국내 단체나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해외 참가자가 40% 이상이며 참가국이 5개국 이상인 국제회의(3일 이상, 300명 이상)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해외

경쟁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MICE 인프라와 대외적인 환경위험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세계적인 MICE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세계적인 MICE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미래 MICE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마이스(MICE)란?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신조어다.

'담배없는 직장' 서울시가 앞장선다

서울시, 300인 이상 7개 기업 대상
환경진단·건강증진 프로 등 진행

서울시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과 '금연문화' 조성 프로젝트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추진한다. 해당 업체는 LG사이언스파크, 문배철강, 엔시큐어, 아이센스, 제주항공, 한국코퍼레이션, 한독 등이다.

서울시는 '담배없는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금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기업체 대상 금연문화조성사업이다. 이날 서울시와 참여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의 협약식을 맺었다. 참여기업은 서울시의 컨설팅과 금연프

로그램을 지원받으며 금연의사결정기구를 운영, 전 임직원이 함께 담배 없는 사업장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장별 금연캠페인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환경진단, 조직의 금연문화조성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근로자 건강증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개 참여기업은 회사 대표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사업장으로, 금연 인센티브, 금연펀드, CEO 금연응원 메시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회식비 지원, 금연휴가, 금연지지 동아리 등 다각도 지원으로 기업 금연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LG사이언스파크는 소재생산기술연구기업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음주, 흡연을 선택하는데 이번 금연문화조성을 계기로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문배철강(주)는 최근 CEO의 금연성공으로 임직원들의 금연과 건강증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이번 사업을 통해 정착될 금연문화가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모두 향상하는 윈윈 전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엔시큐어(주)는 IT·보안서비스기업으로 흡연하는 직원이 많아 강력한 금연의지로 참여한다. 최근 한 직원이 어렵게 금연에 성공해 재흡연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동참해 금연문화 확립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근로자 흡연은 기업 운영에서 사업장 유지 및 관리비 상승과 연관이 있고 흡연 관련 산업폐해나 화재 발생요인 증가에 따라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 사업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더 많은 사업장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단오, 창포물에 머리 감아요"

단오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여름맞이, 단오' 세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내최대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내일부터 5일간 강남 코엑스에서
국내 234개사·32개국 참여

국내 최대규모 책 잔치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확장'으로, 책을 대하는 엄숙주의와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책을 포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일본의 라이트노벨을 재조명하고, 북한교과서 등을 접할 수 있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주빈국 체코관에서는 체코 만화가 등의 작품 전시와 함께 공연, 워크숍 등이 계획돼 있다.

'책의 해'인 올해 24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관에 234개사, 국제관에 주빈국인 체코를 비롯한 프랑스·미국·일본·중국 등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했다. 작가 배수아와 배우 장동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등장한 로봇 다이아나(DIANA)가 올해 도서전의 홍보모델로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특별기획전으로는 '라이트노벨 페스티벌', '전자출판', '잡지의 시대' 등이 있다. 일본의 유명 '라이트노벨' 글 작가와 삽화가를 초청해 사인회와 원화 전시회, 강연회를 열고, 다양한 전자출판물 전시와 함께 문학, 예술,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분야의 잡지 40여 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태어난 소설 종류의 하나로, 가벼운 하위문화로 여겨진 라이트노벨을 이번 도서전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더불어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10종의 신간이 출간되어 첫선을 보이고, 도서전 기간 중에만 판매를 진행한다. 국내 판타지 소설의 거장 이영도 작가가 10년 만에 내는 신간 '오버 더 초이스'를 필두로 '역사의 역사'(유시민),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이승우),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정유정·지승호) 등이 있다. 이번 도서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책도 있다. 서점을 주제로 한 여성 소설가 11명의 잠문집인 한정관 '서점들'이 도서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책을 구입한 관람객에 한해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된다.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향후 남북한 출판문화 교류를 위해 북한 교과서 등 북한 도서 30여 종을 전시하는 '평화' 특별전도 마련된다.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체코공화국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프라하의 봄 50주년, 체코공화국 설립 25주년을 맞아 공연과 워크숍, 작가 사인회 등이 열린다. 체코관에서는 현대 체코 아동 도서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작가 12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12개의 세계'와 체코 만화사와 시대상을 요약한 '그 당시에, 각기 다른 곳에서'를 전시해 체코공화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독서회 회복과 독서출판 생태계 강화를 위해 25년 만에 '책의 해'가 지정된 만큼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역할과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출판사와 저자, 독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참여형 책문화 축제를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나아가 건강한 출판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심폐소생술 실습 모습.

/서울시

여름철 재난 대비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

서울시, CPR 등 이론+실습 교육

서울시가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시민 안전파수꾼을 양성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초기대응을 위한 시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안전의식, 위기상황판단, 재난대응 표은행동요령, CPR 등 응급처치로 구성됐다.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교육과 실습 활동이 진행된다.

교육은 18일 은평구를 시작으로 6~7월 동작구, 노원구 등 8개 자치구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

망하는 개인·단체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을 목표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최근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평소 지역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해 재난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hjk1@

/김현경 기자



[해설]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 향한 우려와 기대 03



Life

[산업] 초기등판 '갤럭시노트9' S펜으로 패블릿 시장 지키나 04



국민카드의 '경제 자양분' 미래 이끌 새싹 쑥쑥 키운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격오지나 도서벽지 어린이에게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KB국민카드는 미래를 이끌 세대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합리적 소비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KB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 전문지식을 보유한 임직원 강사가 용돈관리법부터 안전한 금융 생활까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소비마인드를 키워나간다. 이 교육을 위해 KB국민카드는 교재 및 교구재 활용법, 강의 룰플레이, 우수강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에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지원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책가방 선물세트를 만드는 '예비 초등학교 책가방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비 초등학교 책가방 보내기'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책가방, 보조 주머니, 학용품, 입학 축하 엽서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600여개는 각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에게 전달됐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격오지 및 도서낙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외부 나들이가 쉽지 않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이 활동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230여명의 어린이에게 소중한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북 봉화 동양초등학교 전교생 38명을 초청해 2박 3일간의 서울 문화 체험을 선물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기부행사도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KB국민카드는 201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 헌혈행사를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임직원 헌혈 행사'에 참여한 KB국민카드 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올바른 경제활동 위해 매년 '청소년경제금융교육' 실시

각 지역 아동센터에 입학선물 오지 지역 어린이들 문화체험

소아암 어린이 위해 헌혈증 기부 다문화·독거노인에 나눔활동도



개최해 지금까지 900여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KB국민카드관계자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데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술과 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후원도 진행한다. 미술과 체육 분야에 남다른 소질을 가진 장애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 후원은 KB국민카드가 2014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심사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술 분야 17명과 체육 분야 20명 등 총 37명을 후원했다.

◆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이주여성 후원

KB국민카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원봉초등학교 학생들이 KB금융경제교육 금융뮤지컬을 보기위해 모였다는 현장. /KB국민카드 공식 블로그



5월 11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왼쪽)가 이형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에게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백문일 KB국민카드 상무(오른쪽)가 백종환 재단법인 에이블복지재단 상임이사에게 절단 장애 청년 의족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에게 캠프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한 글램핑'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이 활동은 지난해 어린이 40명이 참가했으며 '글램핑', '제기 차기 등 전통놀이', '판토마임, 마술 등 레크레이션', '무의탁 어르신 위한 전통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나눔 활동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의 자립을 후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카드의 후원금은 서울, 대전, 울산, 안양, 목포 등 5개 지역, 200여명 이주여성 자립지원에 사용된다. 지역별 특성과 이주 여성들의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관광통역, 헤어 등 '전문자격증 취득과정'과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양성과정', '한식 떡집 도시락 등 창업과정'으로 운영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장애 청년',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부터 KB국민카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3000 걸음 이상 걸으면 절단장애 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2월 목표달성에 따라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전국 지체장애인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접수된 희망자 가운데 선정된 5명에게 맞춤형 의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지난 해 7월에는 임직원들이 무의탁 독거 어르신을 위해 선물세트도 제작했다. '폭염대비 물품(여름용 휴이불·쿨토시 등)'과 '보양 식품(삼계탕·사골곰탕 등)' 등 총 7종의 여름나기 물품이 담긴 선물세트 680개를 만들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